

# Style 조선일보

MAY 2014 vol.109



Ermenegildo Zegna  
COUTURE





16



66



표지에 등장한 광고 비주얼은 스테파노 필라티가 디자인하는 제나의 쿠튀르 컬렉션이다. 필라티는 제나의 강력한 전통이자 매뉴얼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과 퍼스널리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브라운 슈트'를 제안했다. 같은 듯 다른 각각의 재킷과 팬츠를 매치해 슈트의 포멀하고 클래식한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성을 살린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240-6521



54



12

- 16 ISALONI 2014 지구촌 최대의 디자인 행사인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의 현장은 어땠을까?
- 18 GIFT SPECIAL 50 (스타일 조선일보)가 엄선한 기프트 컬렉션.
- 26 FRAGRANT HOME 홈 프레아그런스 컬렉션.
- 28 BODY IN NATURE 천연 성분의 보디 제품들.
- 30 SECRET OF MASK 입소문 난 마스크 팩 시크릿 리스트.
- 32 FLAT MAGIC 올봄 최상의 선택, 매끈한 라인의 플랫 슈즈들.
- 34 WONDERS OF DIAMONDS 영국 브랜드 그래프(Graph)가 2014년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하이엔드 시계들.
- 36 CRYSTAL DREAM 세계 최대인 바젤월드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부스를 선보인 스와로브스키를 만나.
- 38 IMMORTAL ALLURE 파리 방돔 태생의 부쉐론은 테크니컬한 위치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듯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한다.
- 40 THE ROSE GARDEN 피아제 로즈 컬렉션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
- 42 SCENT FROM INDIA 인도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담은 불가리의 네 번째 옴니아 컬렉션 '옴니아 인디안 가넷'을 만났다.
- 47 COOL DANDY 쿨한 매력의 빨갈레리 초경량 재킷과 시어셔커 재킷, 그리고 리넨 셔츠.
- 48 NOVELTY IN BASELWORLD 2014 특별한 가치가 담긴, 2014년 바젤월드를 빛낸 새로운 기술을 담은 시계들.
- 52 VISION OF TIME 지난 4월 바젤월드에서 만난 사넬의 새로운 시계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야기했다.
- 54 A FINE PLAY 골프의 계절, 페어 플레이를 즐길 시간이다.
- 62 24 HOURS 7 DAYS 비즈니스 룩부터 워크엔드 룩까지 완벽하게 어울리는 발리의 모던한 변화에 주목할 것.
- 64 HAUTE TIMEPIECE 이탈리아 브랜드의 유니크함과 워치메이커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불가리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 UNIQUE TIME MACHINE 유니크 워치 시장의 새 지평을 연 리처드 밀, 오는 5월 중순 창립자 리처드 밀이 한국을 찾는다.
- 65 NEW ATTITUDE 자연스러움, 시크함, 그리고 끌로에.
- 66 FASHION FOR THE NOSE 칼 라가펠트가 진두지휘한 파리의 향수 론칭 행사 리포트.
- 68 EXOTIC SCENT 다채롭게 펼쳐지는 에트로 향수의 매력.
- 69 BRILLIANT MEMORY 스와로브스키와 만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
- 70 ALL-INCLUSIVE RESORT 클럽메드가 내세우는 서비스 상품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의 강력한 유혹.
- 72 BASE MATE 메이크업 포에버의 베스트셀러 베이스 5종 제안.
- 73 HEALTHY GLOW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당차고 활기 넘치는 여자를 위한 사넬 레 베쥬 컬렉션.
- 75 TIMELESS BEAUTY 고귀한 첫물 녹차를 오감으로 체험하다.
- 76 2014 봄, 새로운 미술관들을 품다 이번 봄, 꼭 가보아야 할 새로운 미술관과 갤러리.

# Style 조선일보

Issue.109 May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스페셜 에디션이나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Jewel BANGLE JUNGLE

단 하나만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볼드한 밴글 컬렉션.

(위부터 아래로)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 착용할 수 있는 옐로 골드 라브 브레이슬릿. 스크루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뉴욕 본사 외벽에 설치된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얻은 아틀라스 컬렉션, 로즈 골드 불꽃모양이 완성한 오픈 밴글 1천만원대,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 밴글 1천6백만원대, 1837 루비에도 컬렉션 화이트 커피 가격 미정 모두 **타파니**, 옐로 골드 라피스 라줄리, 크리스 프레이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파리 누벨버그 컬렉션 브레이슬릿 8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촬영: 김미연/드림

## Fashion SNEAKERS BOOM

프리미엄 스니커즈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 있는 셀렉션부터 빈티지한 무드, 친환경 공정까지 각자 뚜렷한 철학과 콘셉트를 지닌 유럽 태생의 스니커즈가 소비자의 지갑을 공격 중이다. 먼저 슈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탈리아부터 만나보자. 밀라노와 파리, 런던을 지나 국내에 안착한 '스터즈워(Studswar)'는 금속성 단추와 못, 스톤 등을 과감하게 믹스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특징. 스터드를 중심으로 주얼리, 패치 등 예상치 못한 조합과 캔버스에 그림을 그대로 신발로 구현한 듯한 예술적인 프린트를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다양한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집숍 소핑을 선호한다면 '스탈레 디 마토(Stile di Matto)'로 향할 것. 일렉산드로 델라쿠아, 디스퀘어드2, 존 갈리아노, 로베르토 까발리 등 패션 하우스 디자이너의 스니커즈를 총망라한 곳으로 눈길을 끈다. 밀리터리 캐주얼 스타일의 자체 제작 브랜드 마또는 젊고 감각적인 감성을 담아 20~30대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브랜드의 공동 창업자 이름의 앞 글자를 딴 'D.A.T.E'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인기를 누렸던 트레이닝 슈즈의 투박한 느낌을 패셔너블하게 재해석했다. 패션 편집매장 라운지에서 판매 중.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재,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프랑스 브랜드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프리미엄 슈즈 셀렉트 숍 플랫폼에서 들어온 '베자(VEJA)'는 특별한 광고와 마케팅 없이도 유명세를 떨친 케이스. 세련된 컬러와 담백한 디자인에 매료된 셀러브리티와 해외 패션 블로거들에게 일찍이 간택되었다. 브라질 북쪽 지방에서 재배한 오가너 코튼과 아마존에서 채취한 천연 고무로만 만든 정직한 생산과정 역시 의미를 더한다. '시와(SAWA)' 역시 아프리카의 안정적인 일거리 창출을 돕는 '착한' 스니커즈 브랜드. 가죽, 고무, 천 등 소재부터 기공과 생산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진다. 빈티지한 색감과 정교한 스티치, 풀 그레이너 가죽으로 완성한 뛰어난 품질이 입소문이나면서 날개 돋힌 듯 순항 중! 에디터 **이예진**

스탈레 디 마토



시와

베자

스터즈워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Drink PREMIUM WHISKY

강하지만 감미로운 알코올 향이 코를 찌르는 프리미엄 위스키가 잇따라 선보여 증류주 애호가들을 살리게 할 듯하다. 우선 페르노리카의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인 더 글렌리벳(The Glenlivet)의 한정판인 '더 글렌리벳 리저브 빈티지 1968'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성 높은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스사이드 증류소에서 엄선한 단 하나의 아메리칸 오크 통에서 39년 동안 숙성을 거친 뒤 탄생한 특별한 한정판이며 전 세계적으로 2백32병, 국내에서는 12병만 판매된다.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그대로 병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알코올 도수가 50.9%로 높은 편이며 무화과나무 향과 더 글렌리벳 특유의 달콤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가격은 4백50만원대(700ml). 보다 많은 몰트위스키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몰트 바에서 잔술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에드링턴 코리아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엘리엇 어윅과 손잡고 탄생시킨 한정판 위스키 '맥칼란 마스터 오브 포도그라피 4 엘리엇 어윅 에디션(MOP4: Elliott Erwitt Edition)'을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맛과 향이 제각기 다른 58가지 싱글 캐스크 위스키(한 오크 통에서 나온 위스키만을 병에 담은 제품)로 구성된 이 에디션은 사진작가 엘리엇 어윅이 남다른 관찰력과 유머 감각으로 포착한 스코틀랜드 곳곳의 사연을 패키지로 디자인에 적용한 제품이다. 싱글 캐스크별로 35병씩 한정 생산됐는데, 국내에는 10병만 들어왔다. 가격은 2백20만원. 이 밖에 페르노리카의 대표적인 스킵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은 '2014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봄 시즌이면 한정판으로 나오는 골프 에디션 이름다운 녹색의 보틀에 골퍼 이미지와 발렌타인의 B 로고를 더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14만5천원. 에디터 **고성연**

더 글렌리벳



맥칼란

발렌타인

## Beauty SMART BEAUTY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아이템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용하는 재미와 편리함으로 즐거운 뷰티 타입을 선사할 스마트 뷰티 아이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진화' 울인원 쿠션 선 밤은 파운데이션의 촉촉함과 파우더의 매끈한 마무리감을 모두 갖춘 선 케어 제품으로, 내장된 입체 쿠션 파프르 얼굴의 굴곡까지 섬세하게 바를 수 있다(13g 6만5천원). '메이업 포에버 아이쿠아 루즈'는 음료를 마셔도 겁에 묻어나거나 번지지 않는 신개념 립글로스. 바르고 나자마자 키스를 해도 컬러가 지워지지 않는다(2.5mlX2 3만6천원). '디올 매니큐어 트랜젯'은 선명한 컬러의 네일 폴리시와 네일 파일, 네일 스티커가 한 세트 구성되어 있는 네일 키트다. 네일 에나멜을 바른 뒤 스티커를 붙이면 감각적인 손톱이 완성된다(3만9천원). '클라리닉 스마트 에디션 아리아'는 메이업 진여물까지 자극 없이 말끔하게 지워주는 진동 클렌저. 클렌징 브러시가 초당 3백 회 음파 진동으로 죄우로 움직이며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23만원). '케이트 서머빌 더밀란치 산소 부스터'는 전문 스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산소 트리트먼트를 코즈메틱으로 재현한 신개념 산소 부스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침투시켜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75ml 4만8천원). 붓 펜처럼 생긴 '필로소피 브라이드 마이 데이 엑스퍼트 다크 스팟 앤 포어 화이트닝 필 펜'은 보기 싫은 잡티와 넓은 모공을 지우는 다크 스팟 케어 제품. 고민되는 부위에 터치하면 잡티 고민 끝(4.5ml 7만원). 1장씩 뜯어 사용하는 '필로소피 더 마이크로리버리 트리플 에센스 브라이딩 필'은 필링 용액이 묻어 있는 얇은 패드 타입으로, 마치 토너를 바르듯 쓱 닦아내지만 해도 단 30초 만에 손쉽고 간편하게 필링을 끝낼 수 있다(12개입 10만원). 에디터 **권유진**



## Exhibition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선보여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도 친숙한 클로드 모네, 폴 세잔, 폴 고갱, 반 고흐처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빛낸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1백75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대표작으로는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과 '런던, 안개 속에 비치는 햇살 아래 의회당', 고갱의 '부채가 있는 정물', 세잔의 '다섯 명의 목욕하는 사람들', 고흐의 '외젠 부쉬의 초상', 에드가 드가의 '춤추는 여인',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주술사' 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까뜨프가 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공식 후원하며 이를 위한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선보여 주목을 끈다. 실제 작품을 녹여낸 '오르세 라인(Orsay Line)'의 듀엣 백 2종류와 스카프 3종류가 바로 그것이다. 앙리 에드몽 크로스의 '요정들의 추방', 그리고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주술사'를 담은 듀엣 백은 체로키 원단을 사용해 구김 현상과 틀어짐을 보완하고 오염과 이염을 방지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고.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오르세 라인 국립중앙박물관 아트 숍과 온라인 직영몰(www.louisclub.com), 지정된 루이까뜨프 매장, 그리고 오는 8월 말에는 스카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6월 30일까지 온라인 직영 몰과 국립중앙박물관 아트 숍에서 오르세 듀엣 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레일 글로벌 패스 1등석 티켓(1인 2매)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시은 행사도 진행한다. 에디터 **고성연**

자료 제공 Photo RMN / Musée d'Orsay, 2014

블루 다이아몬드  
패턴의 긴 쿠션  
10만원대  
차트웰 & 존슨  
by 에버뉴636.

기포가 살아 있는  
블랙 색상의 유리 저그  
13만5천원 선취구디.

배근취어얌은 초간이 특장인  
페이더 벨프 소재의 에이스  
7만5천원 매중 르베이지.

진행 정수용(리본, 칼럼니스트)  
이시스핀트 담미리(고고, 적당)

우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디자인에  
전구를 노출한 유리 볼 형태의 멜링  
다운 조명 4구 4백30만원 카멜리니  
by 밀라노디자인빌리지.

부드러운 곡선과 오묘한 색감이 돋보이는 하이메 아온 디자인의 파넬 소파 1천4백만원대 프리츠 한센 by 에이후스.

스톤으로 위상한 외를 조직의 리넨 블랭킷  
18만9천원 이헤베트.

가장자리의 스티치 라인이 우아한 느낌을 주는 안토니오 치테리오  
디자인의 데이 베드 9백만원대 막살토 by 인피니.

잡과 아프리카 직물을  
사용해 핸드 메이드로  
제작한 레드 바스켓  
15만원 햅터원.

꽃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이 여성스러운 하이백  
스타일의 아웃도어용 크리놀린 양치어  
9백만원대 B&B이탈리아 by 인피니.

# for her Selection

촉감이 서늘한 리넨과 부드러운 면, 거칠지만 크래프트적인 소재인  
짚과 직물, 시적인 느낌을 더하는 유리까지 소재 자체의 질감에 집중한  
디자인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heo in young*

투명한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가벼운 느낌을 주는  
오크 테이블 램프  
80만원 포스카리니  
by 에이후스.

라탄 소재로 가벼운 색은  
보온 주전자 47만4천원 선취구디.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클래식한  
미감의 캔들  
홀더 8만6천원  
하우스라벨.

내추럴한 촉감과 컬러가 돋보이는 리넨  
쿠션 각 7만9천원(송 포함) 이헤베트.

리비에라 매중 02-547-1977 매중 르베이지 02-749-5667  
밀라노디자인빌리지 02-516-1743 하우스라벨 070-4119-2566 선취구디 02-3443-3708  
에버뉴636 02-517-7370 에이후스 02-3785-0860 이헤베트 070-8804-6495 인피니 02-3447-6000 햅터원 02-517-8001

투명 아크릴 톱과 회색 무광 래커로 마감해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을 주는 아이스 폭스 펜던트 조명 가격 미정 **라이트업스 by 웰즈.**



화이트 페인트 나무의 브라스 컬러가 화려한 느낌을 더하는 1.341 펜던트 조명 1백45만원 **이르베 by 에이후스.**



송이자기족을 엮어서 만든 블랙 사각 바스켓 1백40만원 **헨리 베글린.**

(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 정수용(리빙) 칼럼(리빙)  
이시즈(리빙) 담요(리빙)



한스 베그너가 디자인한 육중하고 중후한 형태의 PP19 체어 5천2백만원대 **PP외블러 by 에이후스.**

# for him Selection

월넛 소재의 나무와 마블이 선명한 대리석, 반짝이면서도 강인한 브라스나 브론즈 같은 금속 소재가 어우러졌을 때 중후하면서도 근사한 남성의 공간이 탄생한다. *photographed by heo in young*

우뚝두툽한 질감이 핸드메이드의 느낌을 더해주는 그린 색상의 티포트 14만2천원 **선혁구디.**



일정한 패턴을 음각해서 예스리한 느낌을 준 일루미늄 볼 1만1천원 **마담스톨츠 by 매종드실비.**



우중후한 원통형 베이스와 화이트 대리석 상판으로 구성된 이노키 사이트 테이블 가격 미정 **e15 by 디올니.**



장식을 절제한 미니멀한 형태가 돋보이는 장마리 마소 디자인의 캐나다 가족 소파 2천만원대 **폴트로나 프라우 by 밀라노디자인빌리지.**



벌목한 나무 원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다크한 상판과 유기적인 라인의 브론즈 베이스 조합의 다이닝 테이블 가격 미정 **허드슨 퍼니처.**

아메리칸 월넛과 블랙 가죽 시트를 사용한 남성적인 스타일의 DC90 암체어 가격 미정 **체코티 by hL1991.**



마블 소재가 아닌 패턴을 차용한 워트 있는 디자인의 라운드 커피 테이블 4백40만원 **카펠리니 by 밀라노디자인빌리지.**



가죽 스트랩과 프레임을 사용한 원형 벽걸이 거울 1백70만원 **구비 by 이노메싸.**



부들부들한 안가죽 소재의 핸드메이드 플랫 슈즈 9만18천원 **마리칸츄리.**



직선과 각을 살린 모던한 디자인의 맥퀸 롤 체스트 가격 미정 **매튜 힐튼 by 에버뉴636.**

hL1991 02-515-5361 디올니 02-3442-4672 마리칸츄리 02-514-6879 매종드실비 02-518-2220  
밀라노디자인빌리지 02-516-1743 선혁구디 02-3443-3708 에버뉴636 02-517-7370 에이후스 02-3785-0860  
웰즈 02-511-7911 이노메싸 02-3463-7752 허드슨 퍼니처 02-516-3011 헨리 베글린 02-516-8101



# Gift Special 50

소중한 사람의 취향을 생각하면서 고른 정성 어린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트렌디 하면서 실용적인 패션 아이템부터 감각적인 디자인의 리빙용품과 전자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엄선한 50개 브랜드의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손으로 엮은 듯 섬세한 터치가 엮보이는 신뜻한 컬러의 하이톱 스니커즈 1백3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문의 02-6905-3795



대형 이미지 센서와 고화질 광학 줌 렌즈를 장착한 콤팩트한 사이즈의 하이엔드 카메라 파우샷 G1 X Mark II 89만9천원 **캐논**. 문의 1588-8133



(왼쪽부터)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크림 50ml 39만원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세럼 30ml 39만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문의 02-3440-2772



페이퍼트 가죽 소재의 진한 옐로 컬러 미니 리키 백. 지갑과 파우치 정도만 들어가는 아주 작은 사이즈다. 19X15.5cm, 1백66만원 **랄프 로렌**. 문의 02-545-8200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신사들의 여름철 옷차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라피아 소재 중절모 10만원대 **테드 베이커**. 문의 02-310-1556



블루와 핑크 컬러의 체크 패턴 셔츠는 칙칙한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한다. 소재의 촉감도 뛰어나다. 73만원 **비버안 웨스트우드**. 문의 02-543-1790



오렌지, 루비 레드, 스카이 블루 등 트렌디한 컬러와 2.4kg의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에스프레소 머신 19만9천원 **네스프레소**. 문의 080-734-1111



리본, 하트, 말 등 다양한 모티브와 컬러풀한 원석, 레터링이 적힌 참이 달린 실버 주얼리 각 2백만원대 모두 **핀도라**. 문의 02-3438-6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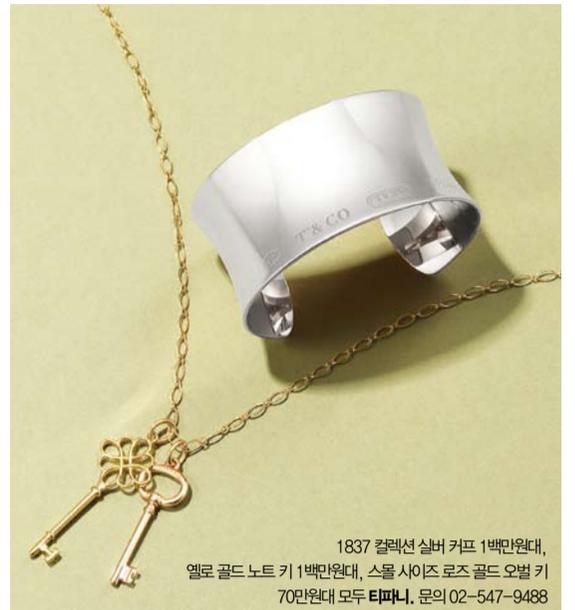
앞코에 스틸로 포인트를 준 스니커즈. 빈푹이를 뽀인 듯한 디자인 외에 슬리드 컬러로도 선보인다. 60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41



(왼쪽부터) 테르 데르메스 오트레 프레쉬 125ml 15만6천원 **에르메스**, 문의 080-990-8989, 클럽 오데 토알렛 50ml 7만5천원 **메르세데스-벤츠**, 문의 080-363-5454



소가죽을 유연하게 만들어 착용감을 높인 로퍼. 캐주얼한 위크엔드 룩을 멋스럽게 마무리한다. 1백만원대 **토즈**, 문의 02-3448-8105



1837 컬렉션 실버 커프 1백만원대, 옐로 골드 노트 키 1백만원대, 스톤 사이즈 로즈 골드 오벌 키 70만원대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태블릿과 울트라 북의 장점을 결합한 2014년형 탭북. 블루라이트 파장을 감소시키는 '리더 모드'를 적용해 눈의 피로를 줄였다. 1백만원대 **LG전자**, 문의 02-6370-3153



다양한 컬러 조합과 견고한 형태로 사랑받는 투주르의 미니 사이즈 모델인 뱀띠 투주르. 26X20.5cm, 2백64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2



강한 충격에도 모양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독자적인 소재를 적용한 코스모라이트 트렁크. 20인치, 64만원 **샘스나이트**, 문의 02-3288-3770



감각적인 프린트가 돋보이는 스틸레토 힐. 뽀족한 앞코와 매끈한 실루엣이 다리 모양을 예쁘게 잡아준다. 95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볼드한 메탈 장식 장지갑과 옐로 사피아노 장지갑.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빗살무늬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각 70만원대 모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화려한 컬러의 타이는 쉽게 사기 어려운 만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쁨이 배가된다. 특별한 날 슈트에 포인트를 더하기 좋다. 각 43만원 모두 **키튼**, 문의 02-6905-3787



환절기에 활용도가 높은 지퍼 풀오버 카디건. 조각감이 돋보이는 울 소재를 탄탄하게 엮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29만8천원 **잭 니클라우스**, 문의 02-3677-8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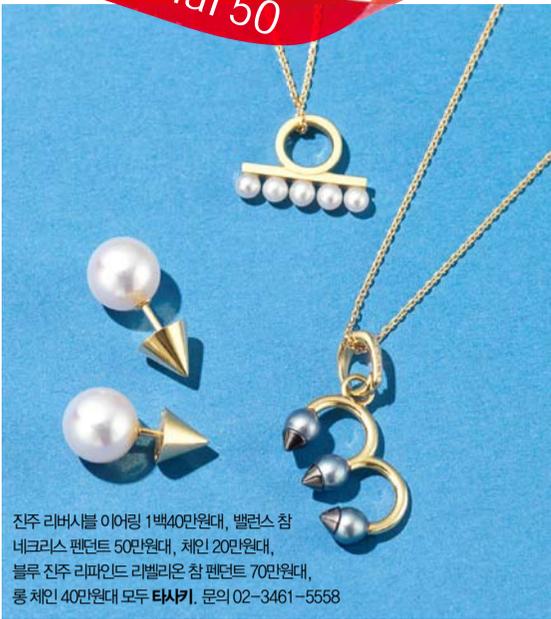


뉴욕의 티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독특한 블렌딩 티 벨로크 틴 케이스형 7만5천원, 티백형 3만5천원 모두 **벨로크 by 단앤엘루카**, 문의 02-3479-1607



플러워 프린트 다이얼과 스트랩이 경쾌한 위치. 잔디 화분 케이스로 재미를 더했다. 9만6천원 **스왑치**, 문의 02-3446-9401

gift special 50



진주 리버시블 이어링 1백40만원대, 밸런스 참 네크리스 펜던트 50만원대, 체인 20만원대, 블루 진주 리퍼인드 리벨리온 참 펜던트 70만원대, 롱 체인 4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스틸과 블랙의 모던한 조합이 돋보이는 오타고날 커피포트. 다양한 각도로 커팅한 조형미가 눈에 띈다. 30만13천원 알레시 by 더플레이스, 문의 02-3444-9595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쉬 에콜라 콜렉터 와일드 에디션 2.5ml, 4만7천원대 **입생로랑**, 문의 080-565-5678, 스킨누드 슈머 10g, 7만5천원 **다올**, 문의 02-3438-9631, 프로엔자 솔라 블러쉬 올브레 9g, 4만4천원 **맥**, 문의 02-3440-2645



내추럴하게 커팅한 로고와 두꺼운 스티치 장식, 세련된 컬러 조합으로 완성한 슬림온 스타일의 에스파드리유 슈즈 60만원대 **사벨**, 문의 02-543-8700



심플한 화이트 헤드셋 19만9천원 **솔 리퍼블릭 by 발리안트**, 네이비 컬러 헤드셋 40만5천원 **비츠 바이 테크닉 by 발리안트**, 문의 02-3430-3212



자연스러운 구김이 오히려 더 멋스러운 화이트 셔츠. 앵커 모티프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45만원 **톨 브라운**, 문의 02-6905-3505



맨 위의 에이비에이터 스타일 선글라스 1백30만원대, 맨 아래 자켓 프레임 선글라스 50만원대 모두 **까르피에**, 문의 02-544-2314, 가운데 그라데이션 스타일 프레임 40만원대 **올리버 피플스 by 록스타가 코리아**, 문의 02-501-4436



핑크와 화이트 바탕의 블랙 프린트가 서로 다른 매력을 풍기는 반자갈. 각 50만원대 모두 **생로랑**, 문의 02-3438-7627



대용량으로 한정 출시한 선물용 메시지가 담긴 이쿠아수르스 3.0 캔디그라피 리미티드 에디션 각 125ml, 8만2천원대 **비오렘**, 문의 080-022-3332



하루의 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뿐만 아니라 수면 모니터링 기능까지 겸비한 라이프스타일 트레이너 핏빗 플렉스™ 각 13만9천원 **핏빗**, 문의 080-808-0232



가족의 질감이 살아 있는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 브리프케이스는 비즈니스맨에게 추천한다. 37x30cm, 1백70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집에서도 손쉽게 현미를 도정할 수 있는 가정용 라이스 밀러 맘스밀. 월 렌탈료 3.6kg 기준 3만9천5백원(선택한 쌀의 양에 따라 다름) **비디프렌드**, 문의 1800-0357



컬러풀한 스톤으로 플라워 모티프를 장식한 아돈 밴글. 심플한 드레스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착용하기에 좋다. 각 46만원 **스외로브스키**, 문의 1661-9060



HD TV보다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과 사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 16G 50만원, 아이패드 커버 5만2천원 모두 **애플**, 문의 080-330-8877



진한 브라운 컬러 스트레이트 팁 슈즈는 신사들의 필수품. 착용감을 극대화한 볼로냐 공법을 적용해 발의 피로를 줄였다. 59만원 **맥나니 by 분더샵**, 문의 02-3444-3300



(왼쪽부터) 듀오 아이섀도우 트로피컬 프러세스 4g 4만8천원, 아이페인트 바일베크 2.5g 3만6천원, 립글로스 실리망카 & 달라이트 각 6ml 3만6천원 모두 **나스**, 문의 02-6905-3747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투명한 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플 워치. 기계식 시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모델이다. 여성을 위한 화이트 밴드 1백47만원, 남성을 위한 스틸 밴드 1백57만원 모두 **해밀턴**, 문의 02-3149-8292



펼치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킬 만큼 예술적인 패턴과 컬러를 입힌 실크 스카프. 화이트 셔츠에 매치하면 멋스럽다.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왼쪽부터) 페가소 오데 토일렛 50ml 10만원, 자카드 오데 퍼퐁 100ml 16만5천원 모두 **에트로**, 문의 080-363-5454



가죽의 결이 느껴지는 에미레타 소재의 클러치 백. 전면의 볼드한 로고로 포인트를 줬다. 20X14cm, 2백20만원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블랙 컬러 몽 듀퐁 시크 라인 85만원, 레드 컬러 몽 듀퐁 프레스티지 라인 1백19만원, 화이트 컬러 리베르테 만년필 69만원 모두 **S.T. 듀퐁**, 문의 02-2106-3436



여러 겹의 스트랩으로 장식한 브라운 컬러 웨지힐 슈즈. 발목 부분을 밴딩 처리해 신고 벗기 편하다. 1백19만원 **아노나**, 문의 02-3438-6070



이탈리아에서 유기농으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00ml 6만8천원, 250ml 4만6천원 모두 **오엠**, 문의 02-517-5515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도형 패턴을 전면 사용 클러치 L 사이즈 36X26.5cm, S 사이즈 30X20.5cm 각 33만원 모두 **피에르 아르디**, 문의 02-310-5052

# fragrant Home

나날이 높아지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덕에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는 리빙 퍼품을 사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향초부터 디퓨저, 포푸리까지 일상을 가득 채울 홈 프레이그런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컬티 스타일 라인 인퓨조** 1990년대부터 리빙 퍼품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밀라노 브랜드 컬티의 디퓨저. 등나무 갈대 소재의 우드 스틱이 은은하고 섬세한 향을 발산한다. 베르가모트와 제스민, 레몬 향을 담아 심신 안정과 공기 정화 효과를 낸다. 1000ml 29만8천원. 문의 02-547-7845

**크리드 스프링 플라워 센티드 캔들** 벌집에서 추출한 최상급 비즈 왁스로 만들어 그윽음이 적고 열에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향초. 수백 년을 이어온 파리 부티크의 주스와 크리드의 상징인 왕실 문장이 그려져 있어 더욱 아름답다. 200g 14만5천원. 문의 02-517-5218

**씨호 트루몽 룰 스프레이** 1600년대에 탄생한, 리빙 퍼품의 원조 브랜드 씨호 트루몽. 에르메스와 까르띠에 등 수많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향초를 만들 뿐 아니라 세계의 궁전과 최고급 레스토랑에도 초를 공급하는 브랜드다. 그런 브랜드의 제품답게 이탈리아의 빈치 지역 예술가들이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아름다운 그린 칼러 글라스가 돋보이는 룰 스프레이다. 375ml 22만원. 문의 02-517-5218

**아쿠아 디 파르마 레드 스파이시 큐브 캔들** 스파이시한 향기를 담아 불쾌한 냄새까지 사라지게 하는 기능적인 캔들. 강렬한 디자인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이다. 처음 초를 사용할 때는 심지를 약간 자르고 불을 붙여야 하고 큐브 캔들의 경우 5시간 연속, 글래스 캔들의 경우 2시간 정도 태우면 촉계 타 들어가는 터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1000g 12만5천원. 문의 02-517-5218

**프레쉬 오벌 슝** 1991년 프레쉬의 최초 아이템이었던 럭셔리 비누 세트. 국내에는 2014년 4월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프랑스 전통 비누 가공법으로 만들어 사용감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패키지와 풍부한 향기 덕분에 여러 개를 썰어 리빙 퍼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50g 2만2천원. 문의 080-822-9500

**레호 카르마카멧 트레디셔널 아시안 포푸리** 자연 재료로 만든 포푸리와 태국 브랜드 카르마카멧의 오리 지닐 아로마 오일을 섞어 만든 오리엔탈 느낌의 방향제. 뚜껑을 열어둔 채로 3개월 정도 향기가 지속된다. 4만6천원. 문의 070-8840-6688

**신타 마리아 노벨라 핸드 페인트 도자기 포푸리** 30일 이상 집 곳곳에 담겨두어 부드러워진, 피렌체 언덕의 싹과 잎, 꽃잎을 혼합해 만든 방향제. 노란 향이리는 피렌체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포푸리 내용물은 공기가 닿지 않게 비닐 포장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200g 21만8천원. 문의 02-546-1612

**보트르 보스케 디퓨저** 오로지 핸드메이드로만 이루어지는 순수한 제작 방식이 특징인 아로마 브랜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디퓨저는 향초와 똑같은 다양한 향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스케는 프랑스어로 작은 숲을 의미하는데, 풀잎과 어린 꽃향기를 느낄 수 있다. 보틀에 등나무 속살로 만든 리드를 꽂으면 1~2일 지난 후 발향이 시작된다. 디퓨저에 향을 가득 붓지 않고 처음에는 절반 정도 채운 후 조금씩 부어주면 향이 더 오래 지속된다. 250ml 3만9천원. 문의 02-3446-0927

**오엠 트리 라벤더 캔들** 유기농으로 경직된 라벤더 오일을 함유한 천연 향초. 인위적인 강렬한 향기가 아닌, 자연에서 온 은근한 천연 라벤더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220g 7만8천원. 문의 02-517-5515

**르 리보 홈 프레이그런스 황게 15** 향기의 수도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탄생한 빈티지하고 쿨한 아로마 브랜드. '연구실'이라는 브랜드의 이름답게 패키지가 신선타다. 무화과와 블랙 커런트 향이 섞인 달콤한 황게 15 홈 프레이그런스는 베게, 커튼, 카펫, 전구에 분사해 사용하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다. 100ml 18만5천원. 문의 02-517-5218 에디터 **배미진**



# Body in nature

점점 짧아지는 소매와 바지 사이로 드러내야 할 맨살이 걱정되는 당신. 설탕, 소금, 과일 등 천연 성분의 영양과 향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보디를 정비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자도르 드라이 샴피 바디 오일** 꽃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한 일명일랑 오일이 까칠까칠한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 자도르 향수의 플라워 향을 그대로 담고 있어 보디 제품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일품이다. 150ml 8만6천원. 문의 02-3438-9631

**소비오 리임 앤 과라나 샤워 젤 by 온뜨레** 과라나 추출물과 라임, 레몬 에센셜 오일, 일로에 베라 잎의 심종주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샤워 젤. 몸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시트러스 프루츠 노트가 어우러진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 준다. 300ml 1만9천원. 문의 080-547-7000

**산타 마리아 노벨라 샴피 다 페디루비오** 과물산나트륨, 아이리스 가루, 녹말, 멘톨이 들어 있는 족욕용 소금, 뜨거운 물에 2~3스푼 넣고 15분 동안 담그면 붓고 피곤한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쁜 냄새도 잡아준다. 특히 녹말 성분이 굳은살이나 딱딱한 타노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450g 6만3천원. 문의 02-546-1612

**룩시앙 아몬드 피징 밀크 컨센트레이트** 룩시앙의 대표적인 아몬드 라인인 신제품 보디 크림. 아몬드 오일과 밀크에 네티 추출물을 추가해 보습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허벅지, 복부 등 넓은 부위에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늘어난 보디 피부에 탄력을 더해준다. 200ml 5만원. 문의 02-3014-2965

**프레쉬 슈가 바디로션** 가장 순수한 상태의 흑설탕으로 만든 가벼운 질감의 보디로션. 흑설탕은 전통 요법에서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흑설탕을 중심으로 시아버버, 맥아 오일을 더해 무나진 유수분 균형을 맞춰준다. 레몬과 리치 향으로 출시. 300ml 4만2천원. 문의 080-822-9500

**아름 라인드 컨센트레이트 바디 밤** 향균 효과가 탁월한 오렌지 껍질과 핑크 그레이프, 레몬 껍질이 주성분인 시트러스 향의 보디 밤. 지외선에 오래 노출된 지친 피부를 달래주는 데 효과적이라 특히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 팔꿈치나 무릎, 발등 등 건조한 부분은 두세 번 덧발라주고,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면 쿨링 효과를 더할 수 있다. 120ml 4만원. 문의 1800-1987

**클라린스 로닉 바디 폴리셔** 설탕, 소금, 헤이즐넛 오일 등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은 보디 각질 제거제. 천연 소금이 불필요한 각질을 탈락시키면 설탕 성분이 벗겨진 부위에 영양을 공급해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해지지 않는다. 제라늄, 로즈우드, 민트 등의 아로마 효자로 몸을 개운하게 한다. 200ml 5만2천원. 문의 080-542-9052

**멜비타 시트러스 프루츠 바디 밀크** 갓 수확한 민디린, 스위트 오렌지, 레몬 워터 등 유기농 과일 성분을 듬뿍 담은 보디 모이스처라이저. 여기에 첨가 오일을 더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꿔준다. 200ml 3만8천원. 문의 02-3014-2997 에디터 **이예진**



# Secret of mask

최근에 만난 지인 중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진 사람이 있어 그 비법을 물었다. 그녀는 비밀을 알려주듯 조심스레 마스크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 것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홈 케어만으로 푹 자고 일어난 듯 뽀얗고 촉촉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그래서 준비했다.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마스크 팩 시크릿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켈랑 오가드 임퍼리얼 마스크**  
 뷰티 블로그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수면 마스크 팩. 자기 전 깨끗하게 세안한 뒤 브러시를 이용해 마스크를 얼굴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펴바르고 자면 끝. 영양크림처럼 쫀득하고 리치한 질감으로 다음 날 아침 세안 시 놀람도록 부드러운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천연 당인 리보오스가 세포 호흡을 증진하고 즉각적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가능한 일. 또 콩 단백질 추출물과 식물성 퍼밍 성분이 피부 세포의 그물조직을 조여주어 탱탱하고 차진 피부를 완성한다. 75ml 46만5천원대. 문의 02-3438-9627

**SK-II 스킨 리부스터 집중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는 수분 공급 팩.** 퀴아쿠아 젤 시스템을 적용해 피부를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가꾸고, 브랜드의 핵심 성분인 피타라™를 함유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며 피부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젤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10분 후 전용 시트로 피부 전체를 가볍게 누르듯 닦아낼 것. 즉각적으로 피부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매끄럽고 보송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75g 10만원대. 문의 080-023-3333

**룩사팡 이모르텔 크림 마스크** 지중해 연안의 코르시카 섬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이모르텔 에센셜 오일을 다량 함유한 풍부한 버터 질감의 마스크로, 약간성 피부인 사람에게 강력 추천한다. 룩사팡만의 마이크로 캡슐 전달 시스템으로 유효 보습 성분을 피부에 빠르게 공급해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화 방지 효과를 선사한다. 향산화 성분인 비타민 A·E가 풍부한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고 20%에 가까운 시어버터가 피부를 유연하게 해준다. 125ml 10만원. 문의 02-3014-2950

**입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인텐시브 마스크**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아침, 푸석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먼저 눈에 띄다면 이 마스크를 발라보자. 단 5분만의 집중적인 트리트먼트 효과로 피부에 탄력과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입생로랑 스킨케어 라인인 혁신적인 성분인 글리칸엑티프™를 담아 자진 피부 세포에 탄력과 영양을 부여하고, 크리스탈 퍼밍 젤이 피부에 집중적인 탄력을 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 피부결을 부드럽게 케어한다. 75ml 10만원대. 문의 080-347-0089

**다들 프레스티저 그랜드 마스크** 뛰어난 산소 공급 효과로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크림 타입의 마스크. 외부 자극의 공격을 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준다. 생크림처럼 섬세하고 고운 텍스처로 피부에 도통하게 발라도 걸들지 않고 베갯잇에 묻어나지 않아 수면 팩 혹은 나이트 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얼굴과 목, 데콜타까지 펴 발라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흡수하면 피부가 한결 맑고 탱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0ml 26만원. 문의 02-3438-9537

**클라린스 하이드라원치 크림 마스크** 순한 식물성 성분만을 담은 수분 마스크. 매일 사용해도 좋을 만큼 자극이 없고 촉촉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럽고 되직한 크림 타입 질감으로 자기 전 얼굴 전체에 고르고 얇게 발라 수면 마스크로 사용하면 제격이다. 워시 오프 마스크 팩으로 활용할 때는 크림 마스크를 피부에 도통하게 바른 다음 5~10분 후 마사지하듯 씻어내면 된다. 이때 페이스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사지하면 수분 폭탄을 맞은 듯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75ml 6만2천원. 문의 080-542-9052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래디언트 바이탈리티 2-스텝 트리트먼트** 모공을 청소해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 클레이 마스크와 수분 공급, 향산화 트리트먼트까지 가능한 젤 마스크를 한 제품에 담아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준다. 생활효법을 적용한 석류와 향산화 물질이 풍부한 석류 넥타 인퓨전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윤기 없고 차진 피부에 생기를 더한다. 또 수분 공급력이 탁월한 히알루론산을 포함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50ml 9만원대. 문의 02-3440-2772 에디터 권유진



# Flat. magic

스틸레토 힐의 여성미와 스니커즈의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기 위한 최상의 선택, 매끈한 라인의  
플랫 슈즈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앞과 뒤를 다른 컬러로 매칭한 송아지 가죽 플랫 슈즈 87만원 **피에르 아르디**, 앞코의 블랙 페이턴트 가죽이 포인트인 클래식한 형태의 플랫 슈즈 68만원 **발리**, 짧은 앞코와 세련된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플랫 슈즈. 볼록한 밑창으로 쿠션감을 극대화했다. 1백15만원 **다음**, 내추럴한 밀집처럼 보이도록 가공한 소가죽과 꽃 모양의 주얼 장식이 만들어낸 의외의 조합이 눈에 띄는 플랫 슈즈 1백59만원 **둘레만기비나**, 브랜드의 상징인 스퀘어 프레임과 강렬한 레드 컬러로 완성한 시그니처 플랫 슈즈 85만원 **로저 비비에 by 분더샵**, 리본 장식과 로고 버클을 더한 실버 플랫 슈즈 40만원대 **프라다**, 화이트, 실버, 블루의 컬러 매칭이 여름철 옷차림에 제격이다. 60만원대 **페라가모**, 날렵한 앞코와 스타드 장식이 조화를 이루는 옐로 컬러 플랫 슈즈 1백6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에디터 **이예진**

발리 02-3467-6213 다음 02-518-0277 둘레만기비나 02-3444-0077 분더샵 02-542-8006 프라다 02-3218-5331 페라가모 02-2140-9642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피에르 아르디 02-727-2596



1, 2 럭셔리 위치와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2014년 바젤월드에서 참가한 영국 브랜드 그라프(Graff)의 거대한 보헤미안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돋보이는 503㎡ 규모의 단독 전시 공간.  
 3 2014년 바젤월드에서 최초로 공개된 여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할루시네이션', 1백10캐럿에 이르는 희소가치 높은 유색 다이아몬드들이 빛어내는 색채와 빛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4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의 우아한 조화가 일품인 '시크릿 카브드 에메랄드 워치 컬렉션'.  
 5 나비 모티프가 인상적인 블랙 세틴 스트랩의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3백 피스 한정 컬렉션으로, 올 다이아몬드 버전도 있다. 6 고도의 기계 메커니즘과 다이아몬드의 미학을 접목한 남성용 워치들도 사선을 끈다. 2백88개(10.8캐럿)의 다이아몬드와 그라프 칼리버 4 무브먼트를 내세운 '다이아몬드 마스터그라프 울트라 플랫 투르비옹'.

# Wonders of Diamonds

고도로 정교하면서도 역동적인 기계의 메커니즘에 경이로운 수준으로 어우러진 하이 주얼리의 미학. 요즘 럭셔리 시장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양대 산맥인 보석과 시계의 눈부신 결합은 그야말로 영혼을 빼앗길 정도로 매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출중한 다이아몬드의 노하우를 럭셔리 위치의 영역에서 감각적으로 구현한 영국 브랜드 그라프(Graff)의 눈부신 하이엔드 시계들은 최근 성대하게 펼쳐진 2014년 바젤월드에서 존재감 넘치는 빛과 색을 강렬하게 발산했다.



럭셔리 때로는 자본과 미학의 절묘한 배합으로 경탄해 마지않는 '꿈의 명작'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은 대부분 수긍할 것이다. 오랜 시간 속에 축적되어온 인간의 재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사물을 빚어내는 럭셔리의 세계에서 요즘 가장 크게 주목받는 하이엔드 주얼리와 시계의 만남. 정교하고도 역동적인 기계 메커니즘에 절묘하게 어우러진 진귀한 보석의 수공예 미학은 최상의 브랜드가 뒷받침할 때 그야말로 '궁극의 결합'을 이루어낸다. 휘황찬란한 보석의 세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다이아몬드'의 1인자로 불리는 영국의 그라프(Graff)는 이러한 궁극의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시계 박람회인 2014 바젤월드에서 최초로 공개된 여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은 역시 '그라프답다'라는 찬사가 빗발치게 한 작품이다. 무려 1백10캐럿에 이르는 희소성 높은 유색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이 시계는 아름답고 화사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의 고풍적인 색채 조합을 창출해낸다. 색색의 다이아몬드들이 자아내는 이미지가 독특하게도 민화경을 연상케 하는 이 멀티컬러 타임피스에 예상 가격은 미화 5천5백만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을 자랑한다.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라프의 창업주 로렌스 그라프는 "다이아몬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할루시네이션은 경이로운 유색의 다이아몬드를 예찬하는 정교한 명작이자 내 꿈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못 여성의 마음을 흠쳐버릴 듯한 또

다른 작품으로는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우아한 생명력이 돋보이는 에메랄드의 조화가 일품인 '시크릿 카브드 에메랄드 워치 컬렉션(Secret Carved Emerald Watch Collection)'을 내놓을 수 없다. 5열로 배치한 아리따운 에메랄드 비즈 스트랩이 다이아몬드 장식 클래스프와 맵시 있게 연결된 이 컬렉션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주얼리 피스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그라프의 디자인 디렉터 앤-에바 제프루아의 표현처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 할루시네이션과 에메랄드 컬렉션이 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할 만큼 아름답고 섬세한 여성미를 자아낸다면, 극강의 남성미를 뽐내내는 그라프의 럭셔리 워치 신제품도 있다. 먼저 개발에 2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독점 무브먼트인 그라프 칼리버 5가 장착된 마스터그라프 그랑 데이트 듀얼 타임 투르비옹(MasterGraff Grand Date Dual Time Tourbillon). 플라잉 투르비옹, 듀얼 타임, 그랑 데이트 등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탑재한 그라프 최초의 시계로 올해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였다. 자정에 즉각 날짜가 변동되는 최첨단 기능은 물론 견고한 균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까지 겸비한 이 타임피스는 두께가 겨우 9.5mm에 불과한데, 한 피스를 제작하는 데 2백90시간이 넘게 소요된다고, 12시 방향에는 그라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다이아몬드로 표현되어 있다. 다이아몬드를 강점으로 하는 그라프의 자신감이 더욱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제품들도 있다. 2백88개(10.8캐럿)의 다이아몬드와 그라프 칼리버 4 무브먼트를 내세운 '다이아몬드 마스터그라프 울트라 플랫 투르비옹(Diamond MasterGraff Ultra Flat Tourbillon)'은 첨단 시계 기술과 그라프만의 다이아몬드 노하우의 결정체다. 모자이크 세팅으로 정교하게 결합된 1백28개(5.9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케이스를, 1백60개(4.9캐럿)의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을 장식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물결 속에서 12시 방향을 가리키는 삼각형 에메랄드가 눈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은 덜하지만 세련되게 절제된 균형미와 은근한 시크함을 자랑하는 마스터그라프 컬렉션의 '자이로그라프(GyroGraff)'도 인기다. 다중 기요세 다이얼로 둘러싸인, 8시 방향에 자리 잡은 자이로그라프 문페이스 인디케이터가 눈길을 끄는 제품인데, 이는 매일 변하는 달의 형상을 표현한다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보석 하나하나의 매혹적인 자태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그라프 럭셔리 위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고 단단한 듯하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고성연



# Crystal dream

시계 축제인 바젤월드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부스를 선보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제조에 머무르지 않고 탁월한 품질과 장인 정신, 창의성으로 완성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이 특별한 브랜드의 전시장은 스케일부터 압도적이다.

## 눈부시게 반짝이는 크리스털의 향연

1백19년의 긴 역사 속에서 크리스털, 천연·합성 원석과 주얼리, 액세서리, 조명 등의 완제품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 오스트리아에서는 예술적으로 재해석된 크리스털 작품까지 전시하는 '크리스털 월드'를 완성했을 정도로 브랜드 고유의 세계관을 구축한 스와로브스키는 세계 시계의 각축장인 바젤월드에서도 그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냈다. 세계 최대의 시계 보석 전문 박람회인 바젤월드에 참석한 지 5회째로, 해가 더해 갈수록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워치 컬렉션 출시 5년 만에 세계적인 권위의 레드닷 어워드를 세 번 수상했을 정도로 디자인 가치는 독보적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요시오카 도쿠진과 함께 선보인 빛의 아름다움을 담은 바젤월드 부스는 스와로브스키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바젤월드의 메인 홀 내부에 2개 층에 걸쳐 2000m<sup>2</sup>가 넘는 공간을 차지하는 거대한 원형 스탠드를 설치했는데, 그 반짝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25만3천2백31개의 미러형 반사체로 이루어진 높이 7m, 길이 155m의 곡선형 벽이 부스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빛을 느낄 수 있도록 광채, 그 자체의 공간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형태가 아닌 빛의 눈부심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라는 요시오카 도쿠진의 이야기는 이 공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다. 이렇게 완성한 드라마틱한 부스는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공간이며 바젤월드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인정받았다.



## 크리스털 그 자체가 기술인 특별한 워치 컬렉션

올해 스와로브스키에서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시트라 크로노 워치'다. 기존의 시트라 스페어 워치 라인의 확장 버전인 시트라 크로노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전체 베젤을 둘러싸고 있는 세련된 크리스털 파베와 스포티한 매력이 균형을 갖춘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린다. 브랜드의 아이콘이 된 러블리 크리스털 워치는 여성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드레스에 착용해도 될 만큼 우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16개의 지르코니아 스톤이 베젤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이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크리스털이 선사하는 황홀경에 빠진다. 새로운 커팅 방식을 통해 지르코니아 스톤의 광채가 더욱 풍부하고 화려해져 머더오브펠 소재의 다이얼이 더욱 빛나는 느낌이다. 총 10가지 컬러 중 올해 새롭게 선보인 컬러는 골드와 네이비. 반짝이는 크리스털을 가득 품은 크리스탈린 라인 역시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로, 올해 새로운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선보였다. 8백 개의 작은 젯 헤마타이트 크리스털이 담긴 로즈 골드 컬러 케이스는 블랙과 매치해 강렬한 우아함을 선사한다.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 커팅 기술이 돋보이는 옥테아 클래식 라인은 기존 옥테아 스포츠와 옥테아 크로노 라인의 뒤를 이어 보다 활용도 높은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하나의 크리스털을 커팅해 베젤 자체를 완성해 볼륨감이 넘치며 6시 방향의 스플 다이얼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다. 작은 시계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피아자 미니 라인은 기존 피아자 라인의 최소형 디자인으로, 화려한 디자인을 원하는 이들에게 잘 어울린다.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털 메시 스트랩은 어떤 순간에도 빛을 머금고 있는 정교한 커팅의 크리스털을 세팅해 손목에 완벽한 광채를 선사한다. 문의 1661-9060 에디터 배미진



1,4 바젤월드 단독 브랜드 부스 중 최대 규모의 스와로브스키 전시장. 빛으로 가득한 부스를 디자인한 건축가 요시오카 도쿠진은 스와로브스키 매장을 설계하기도 했다. 2 올해의 메인 컬렉션인 시트라 크로노. 3 16개의 지르코니아 원석이 베젤을 따라 회전하는 러블리 크리스털 워치. 5 스와로브스키 원석을 마치 파브리카처럼 유연하게 연결해 화려하게 완성한 피아제 미니 컬렉션. 6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원석이 가득 담긴 워치. 12시 방향의 우아한 스완 로고는 브랜드의 심벌이다. 7 카다란 크리스털 하나를 그대로 가공해 완성한 베젤이 특징인 옥테아 클래식. 과감하고 섬세하게 원석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바로 스와로브스키 워치의 비전이다.

# immortal Allure

스위스 바젤월드에서 부쉐론을 만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유서 깊은 주얼리이자 워치메이커로서 완벽을 기하는 파리 방돔 태생의 브랜드인 부쉐론은 테크니컬한 워치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듯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 방돔 광장의 첫 번째 주얼러, 부쉐론

바젤월드 메인 전시장에 위치한 부쉐론의 부스에서는 시계와 주얼리를 모두 전시한다.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일가를 이룬 몇 안 되는 브랜드이기에 바젤월드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백50년 이상 황홀한 보석의 세계를 창조해 주얼리라는 칭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부쉐론은 1858년 창업자 프레드릭 부쉐론의 강렬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전기로 조명을 켤 수 없었던 그 옛날 태양 빛을 받아 주얼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파리 방돔의 중심에 부쉐론의 부티크가 자리 잡았다. 방돔 매장을 찾으면 그 옛날 세계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고, 인도 귀족 파 티알라 왕족부터 이란의 국왕, 러시아 황제, 이집트와 요르단의 여왕까지 진정 주얼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주얼리가 사진으로 남아 있다. 위치와 주얼리를 통틀어 부쉐론의 시그니처는 단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애니멀 컬렉션. 카멜레온, 개구리, 백조 등 전설적인 동물들은 부쉐론의 완성도 높은 세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환상적인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워치 중 부쉐론의 드라마틱한 완성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리스탈 드 룬 워치. 화이트 골드에 록 크리스탈 돔, 바게트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이 워치는 시계를 넘어선 꿈을 보여준다. 록 크리스탈 안에 연출된 입체적인 풍경에는 빛나는 별을 표현한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하늘 아래 아름다운 공작새가 달 위를 날고 있다. 태슬은 페어 내 화이트 골드 체인의 펜던트로 착용할 수도 있다.

## 고전미와 현대미를 모두 갖춘 부쉐론 워치 컬렉션

'시간의 세공사'라는 별칭이 있는 부쉐론은 1백40년이 넘는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지켜왔는데, 이미 1867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시계를 출품한 바 있다. 올해 바젤월드의 메인 전시 제품인 리플레(Replete)는 1946년 첫선을 보인 부쉐론의 클래식 라인으로, 지금 보아도 모더니즘 그 자체다. 리플레가 첫선을 보인 시대는 미술과 패션, 건축에서 모두 현대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부쉐론도 이에 힘입어 기존의 손목시계의 틀을 깨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 바로 리플레다. 주얼리가 아니라면 세공하기 어려운



- 1 주얼리의 수도, 파리 방돔 광장에 위치한 부쉐론 부티크.
- 2 부쉐론의 창업자 프레드릭 부쉐론의 초상.
- 3, 9 록 크리스탈 돔 안에 공작새를 담은 크리스탈 드 룬 워치.
- 4 앵무새 모티브의 아주레 누리 워치.
- 5 올해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남성용 워치인 리플레 워치.
- 6 가장 클래식한 옐로 골드 소재로 고드롱 모티브를 표현한 신제품 리플레 여성 워치.
- 7, 8 부쉐론의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는 애프터 컬렉션. 블루 워치는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를 이용해 푸른 바다와 성계를 묘사했고, 그레이 워치는 머더오브필름 다이아몬드 꽃발을 표현했다.

골드 주름의 직선 모티브의 고드롱 워치 케이스와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B.B 시스템은 지금 까지도 시간을 초월한 모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리플레는 초기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고드롱의 볼륨을 더했

는데 오히려 이 요소 덕분에 더욱 모던해졌다는 평이다. 시침은 방돔 광장의 기둥을 연상케 하며 용두의 카보숑 컷 사파이어는 마치 상징물처럼 부쉐론의 가치를 알린다. 리플레를 화려하게 재해석한 리플레 폼폰 워치는 하이 주얼러와 시계 제조업자로서의 부쉐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19세기 부쉐론의 하이 주얼리 폼폰(Pompon)에서 영감을 받아 직물처럼 유연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감성을 창조하고 인생을 기념하는 부쉐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애니멀 컬렉션의 영혼을 담은 아주레 컬렉션과 애프터 다이어트의 새로운 작품 역시 부쉐론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드러내는데, 이 두 컬렉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시간을 예술적으로 담아냈다. 아주레 워치는 모든 감각을 활용해 섬세한 조각과 자연의 풍경을 제공했다. 리플레 워치의 백 케이스에는 "Je ne sonne que les heures heureuses(나는 오직 즐거운 시간만을 해아린다)", 즉 시간의 흐름이 아닌 시간과 함께 기쁨이 남긴 자취를 표시한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적어두었다. 바젤월드에서 만난 부쉐론의 아름다운 워치들은 단지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시계가 아닌, 클래식하고 우아한 매종 부쉐론의 영혼을 담고 있는 상징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역사와 철학, 완성도가 삼박자를 이루어 드라마틱한 예술품을 선보인 이번 바젤월드 전시는 부쉐론의 가치와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에디터 배미진



# the rose Garden



행복, 사랑, 황홀함으로 가득 찬 정원에 피아제 로즈가 만개했다. 금으로 만든 장미, 오픈워크 세공 장미, 레이스 세공 장미 등 매력적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탄생한 피아제 로즈 컬렉션. 피아제 로즈 컬렉션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전한다.

## 피아제 로즈, 할리우드 스타들을 매혹시킨다

2014년 봄 샌타모니카의 해변,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아름다운 장미와 주얼리 컬렉션이 향기와 빛을 발하는 피아제의 텐트에 모여들었다. '독립 영화제의 아카데미'라고 불리며 독립 영화의 예술성에 존경을 표하고 독립 영화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는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피아제는 이 뜻깊은 행사에 7년째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신진 프로듀서에게 피아제 프로듀서 어워드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창의성, 끊임없는 노력,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동행, 장인 정신 등은 피아제의 주얼리와 영감에서 혁신을 찾는 독립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스피릿이며 둘을 연결하는 공통점이기도 한다. 피아제의 매력적인 장미가 매력을 발산하는 영화제와 존재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할리우드 스타들. 이 스타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피아제의 로즈 컬렉션 주얼리였다. 로즈 컬렉션은 꽃송이가 탐스러운 피아제 로즈를 장인들의 손을 거쳐 주얼리로 재탄생시킨 컬렉션이다. 영화제에 참여한 이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과 함께하며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장미의 전설에도 하나의 스토리를 더한 것이다.

## 장미를 향한 피아제의 꿈과 열정

피아제 창립자의 4대손 이브 피아제(Yves Piaget)는 어린 시절부터 장미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 이러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1976년부터 제네바 국제 장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1979년에는 피아제 주얼리 공방에서 실제 장미 사이즈의 18K 골드 소재 트로피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 1982년, 권위 있는 제네바 국제 장미 콩쿠르(Concours International de Roses Nouvelle de Genève)에서 저명한 장미 재배사 알랭 메앙이 출품한 장미가 우승해 금으로 된 장미 트로피를 받았다. 알랭 메앙은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재배해 수상한 장미를 이브 피아제에게 헌사했다. 이후 매력적인 색과 향, 그리고 80여 장의 꽃잎이 보여주는 풍성한 볼륨감을 지닌 알랭 메앙의 장미는 '이브 피아제 로즈'라고 명명되었다. 제네바 오비브 공원(Geneva's Parc des Eaux-Vives)의 장미 정원에서 2년 동안 재배한 이 장미는 그해 가장 중요한 3개 대회를 석권했다. 80여 개의 풍성한 꽃잎으로 둘러싸인 이브 피아제 로즈는 연한 핑크빛을 띠며 직육면체 연상시키는 모양이 특징이다. 핑크와 연보라빛으로 그라데이션되는 오묘한 컬러의 꽃잎이 활짝 피어나면 로사 센티폴리아(Rosa Centifolia) 향을 강하게 내뿜는다. 장미에 대한 피아제의 열정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이다. 2012년, 피아제는 이브 피아제 로즈 탄생 30주년을 맞이해 피아제 로즈 컬렉션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스티드 이어링부터 6백6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시크릿 위치'까지 다양한 모델로 구성된 피아제 로즈 컬렉션에는 피아제의 꿈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 주얼리 같은 꽃, 꽃과 같은 주얼리

피아제의 모든 주얼리는 사랑의 상징이고, 유혹의 메시지이며 무엇보다 감각 그 자체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선물하는 꽃, 장미가 1960년대부터 자연과 식물 모티브의 컬렉션을 추구해온 피아제 하우스에 또 하나의 영감을 준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피아제는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장미 꽃잎을 겹겹이 장식해 브로치, 쏘프와 네크리스, 메달리온, 링, 그리고 컵프 시계를 만들어냈다. 보석의 영원성과 꽃의 신선함이 만나 매력적인 피아제의 장미 정원이 탄생한 것이다. 피아제는 금과 보석으로 사랑의 상징이자 꽃의 여왕인 장미의 다양한 매력을 재해석한 주얼리 컬렉션을 창조했다. 주얼리 장인들의 노하우와 재능이 깃든 1백여 가지의 새로운 주얼리가 피아제 로즈 정원에 가득 피어 있다. 세 가지 형태로 해석된 피아제 로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1 이브 피아제 로즈와 제네바 장미 콩쿠르에 피아제가 시상한 로즈 트로피.  
2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시상자로 참석한 공리. 피아제의 화려한 로즈 컬렉션을 착용해 더욱 주목 받았다. 3, 4 로즈 컬렉션이 탄생하는 메이킹 과정 중 일부로,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나는 피아제 로즈를 볼 수 있다. 꽃잎 하나하나를 오픈워크 세공으로 표현하며,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한 다이아몬드 세팅 모델로 선보인다. 보석이 놓일 각 꽃잎의 뒷면을 오픈워크 세공하는 벌집(honeycomb) 기법, 플라시딘 골드 표면을 세공해 만든 홈이 보석을 지지하게 하는 그레인 세팅 작업을 통해 주얼리의 빛을 한층 고조시킨다. 섬세한 인그레이빙으로 장미의 형태를 만들고, 이후 수공으로 개별 제작된 골드 꽃잎들을 하나하나 서로 포개고 조립해 아름다운 장미 꽃송이의 모습을 완성한다. 5, 7, 8 보가만 해도 가슴이 뛰는 피아제의 다이아몬드 로즈 컬렉션들. 6 이브 피아제 로즈와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의 테이블 카드. 9 만개한 피아제 로즈의 한가운데에 장식한 다이아몬드는 장미꽃 한가운데에 서린 이슬처럼 매우 선명한 빛을 발산한다.





# scent from India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핑크빛 도시 자이푸르가 있다. 화려한 사리를 두른 매혹적인 여인들과 뜨거운 공기와 함께 코끝을 스치는 사프란 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곳, 자이푸르에서 인도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담은 불가리의 네 번째 옴니아 컬렉션 '옴니아 인디안 가넷'을 만났다.

## 에너지가 가득한 영감의 원천, 인도

〈데미안〉, 〈깃타르타〉 등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인도에 대해 “나는 인도 여행을 통해 낯설고 이국적인 나라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세기적 밴드 비틀스는 인도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역사에 남을 만한 명반을 탄생시켰고, 스티브 잡스 역시 인도 여행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았다. 인도는 사실 여행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 위생, 안전과 관련해 오해와 편견도 많은 곳이다. 하지만 강렬하고 신비한 매력이 가득해 많은 예술가와 위인에게 영감의 에너지가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도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자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장소인 셈이다. 불가리 옴니아 신제품 론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이푸르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인도 특유의 향이었다. 강한 향신료를 즐겨 먹는 인도 사람의 체취를 감추기 위해 향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들에게 향은 신에게 다가가는 디딤돌로 인도인의 삶과 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다. 인도와 향, 음악과 내적 영혼은 5천 년 이상 밀접하게 연결되어왔다. 보석과 향의 연관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을 멈추지 않는 불가리가 올해 새로운 행선지로 향의 나라 인도를 택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인도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담다

조향사 알베르토 모리아스와 함께 떠난 인도에서의 여정에서 불가리는 인도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인도만의 강렬한 색채와 금실과 은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사리, 고귀하고 우아한 인도 여성의 매력과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이들은 인도의 강렬한 빛을 담은 오렌지 컬러의 보석 만다린 가넷을 발견했는데, 불가리 로마 주얼러의 창조 열망을 자극하는 이 아름다운 원석은 조향사의 손을 거쳐 하나의 새로운 향으로 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인도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옴니아 인디안 가넷'이다. 이번 옴니아 신제품을 포함한 네 가지의 옴니아 컬렉션은 영감을 얻은 곳과 그곳에서 발견한 보석,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불가리의 대표 주얼 향수다. 완벽함을 의미하는 숫자 8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옴니아 컬렉션의 보틀은 불가리 퍼품을 상징하는 아이 콘이기도 하다. 불가리는 블루, 아쿠아, 익스트림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베스트셀러 향수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석의 명가 불가리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향수는 옴니아 컬렉션이다. “보석과 향수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와 꿈의 상징이자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무한함, 다양함, 다채로운 화합을 의미하는데, 이번 옴니아 인디안 가넷은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의 관능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현대적인 여성상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조향사 알베르토 모리아스는 설명한다.

## 영원한 인디아, 영원한 여성, '옴니아 인디안 가넷'

향수라면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향은 특별한 기억을, 혹은 잊지 못할 순간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알베르토 모리아스는 만다린 가넷 원석을 보자마자 인도 반도의 아름다움을 떠올렸다. 그는 인도의 오렌지빛 석양과 사리의 화려한 컬러



1 옴니아 인디안 가넷의 론칭 행사가 이루어진 자이푸르의 대저택. 강렬한 붉은 조명을 받은 건물은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2 옴니아 인디아 가넷의 뮤즈로 선정된 모델 에디타 빌케빅루트. 내추럴하고 우아한 모습은 불가리가 영감을 받은 인도 여왕의 모습과 일치한다. 3 불가리의 신제품 향수 론칭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공연. 4 불가리의 조향사 알베르토 모리아스. 5 저녁에 이루어진 행사에선 우아한 인도 여성의 춤을 감상할 수 있었다. 6 옴니아 인디안 가넷. 인도의 강렬한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오렌지색 보틀이 매력적이다.



가 오버랩되었다고 그날을 회상한다. “옴니아 인디안 가넷이 단순한 향수 카테고리라 아닌 이국적인 여행의 기억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했다. 향수의 메인 향료는 인도의 영원한 상징인 튜베로즈와 고귀한 인도 향신료인 사프란이다. 이는 인도 여성의 상징적인 요소로서, 향을 맡는 순간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시칠리안 만다린을 사용했는데 불가리의 근본이 되는 로마인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오스만투스를 더해 부드러운 관능미를 증폭시켰고, 인디아 우드의 현대적인 노트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알베르토 모리아스의 설명처럼 옴니아 인디안 가넷은 센슈얼하고 관능적인 플로럴 우디 향의 여성 향수다. 이는 프레시하고 이국적이며 우아한 면모가 드러나는 꽃 향을 품고 있다. 불가리는 옴니아 인디안 가넷의 뮤즈로 톱 모델 에디타 빌케빅루트를 선정했다. 그녀의 내추럴한 아름다움은 불가리가 영감을 받은 인도 왕비의 모습과 일치한다. 섬세하고 우아한 여성의 힘을 지닌 에디타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이 향수의 고혹적이며 우아한 면모를 형상화했다. 인도에서의 강렬한 기억, 그리고 매혹적인 인도 여성의 아름다움과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모두 담은 옴니아 인디안 가넷. 인도의 무한한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면 옴니아 인디안 가넷과 함께 인도의 여정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40ml 9만5천원. 문의 080-990-8989 에디터 권유진(인도 현지 취재)

# cool Dandy

낮에는 제법 덥다고 느껴질 만큼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지금부터 남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날씨에도 멋진 스타일을 지켜줄 빨질레리의 초경량 재킷과 시어서커 재킷, 그리고 리넨 셔츠다.



## 더 가볍고 시원하게, 빨질레리의 프리미엄 쿨 재킷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겨울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역시 멋지게 옷 입기란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고민의 무게는 더하다. 가볍고 시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품격을 잃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땀과 전쟁을 치르는 계절이기에 소재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단순히 겉보기에만 멀쩡한 옷은 손이 털 갈 뿐만 아니라 후줄근해 보이기 쉽다는 얘기가.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빨질레리에서는 통기성이 좋은 재킷과 셔츠 컬렉션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통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의 클래식한 감성과 뛰어난 품질의 수트를 한번 입어본 남자들은 주저 없이 선택할 정도로 신뢰가 높다. 올해도 역시 2014 S/S 컬렉션의 대표 아이템으로 초경량 재킷과 시어서커 소재의 프리미엄 재킷 컬렉션을 준비했다. 여름 날씨에 맞춰 울과 실크 소재의 무게를 최대한 덜어낸 가공법을 거쳤다. 안감을 생략한 대신 바느질과 마무리의 완성도를 높여 옷을 뒤집어놓았을 때도 고급스럽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빨질레리로 완성하는 여름철 쿨 비즈 룩

앞서 설명한 초경량 재킷뿐만 아니라 시어서커(seersucker) 재킷도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여름을 위한 이 소재는 오그라든 주름을 줄무늬처럼 짜낸 시원한 조직감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땀을 많이 흘려도 통기성이 좋아 하루 종일 상쾌한 착용감을 안겨준다. 쉽게 구겨지지 않아 공들여 다리미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재킷과 함께 선보이는 리넨 셔츠 역시 주목할 만하다. 뜨거운 날씨에는 코튼 셔츠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때 리넨 셔츠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시즌엔 리넨 특유의 까칠까칠한 촉감을 중화하고 산뜻한 패턴과 컬러를 내세운다. 경쾌한 느낌을 원한다면 체크 패턴을,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단정한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면 된다. 소매를 몇 번 걷어 올려 단추로 고정하고 롤업 스타일로 입어도 멋지다. 여기에 실크 소재의 도트 무늬 스카프를 매치하면 패션 스트리트 블로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탈리아 신사들의 멋진 스타일이 완성된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956, 고객센터 1599-0007 에디터 **이예진**

제품 사진: 김영호,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 PREMIUM COOL JACKET

클래식한 체크 패턴을 입은 시어서커 재킷은 한여름 포말한 옷차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땀 흡수가 빠르고 통기성이 좋아 하루 종일 상쾌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시어서커 재킷과 화이트 셔츠, 아이보리 팬츠, 스트레이트 팁 슈즈, 워킹 벨트 모두 빨질레리.



## COOL BIZ SHIRT

롤업 소매로 제한하는 경쾌한 체크 패턴 리넨 셔츠는 여름철 옷차림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화이트 팬츠를 매치하면 시원한 느낌을 더할 수 있다. 도트 무늬 스카프와 연출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참고할 것. 체크 리넨 셔츠, 화이트 팬츠, 워킹 벨트, 스니커즈 모두 빨질레리.



# Novelty in Baselworld 2014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최상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세계 최대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새로운 소재의 발견, 그 누구보다 특별한 가치의 시계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담긴, 2014년을 빛낼 새로운 기술을 담은 시계를 소개한다.

## 오메가 씨마스터 300 &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마스터 코-엑시얼

오른쪽 블랙 다이얼에 스틸을 매치한 위치는 올해 새로운 얼굴로 태어난 오메가의 '씨마스터 300'. 1957년 첫선을 보인,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과 다이빙 눈금, 블랙 다이얼 위 밝은 인덱스, 커다란 바늘과 숫자로 다이빙을 위한 완벽한 위치를 만들었고, 그 전통은 올해 바젤월드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올해는 골드와 팔라듐을 혼합해 완성한 블랙 세라믹 다이얼을 적용했으며 인덱스 아랫면은 에나멜을 더해 입체적인 표면으로 완성했다. 오른쪽 상단의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시계는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마스터 코-엑시얼 위치. 티크 콘센트의 수직 형태 인덱스가 시그니처다. 두 제품 모두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성에 견딜 수 있는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4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투르비옹

보는 이를 압도하는 종잇장처럼 얇은 비주얼이 시계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리의 노력과 투자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고도로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1.95mm에 불과한 옥트라씬 무브먼트는 가장 얇은 두께의 플라이 투르비옹 위치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투르비옹 케이스 두께 자체를 줄이기 위해 피봇 회전을 가능케 하는 카트리지 베어링을 장착하고 레귤레이터 조립부를 제거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시간 조절이 밸런스 휠에서 직접 이루어지기에 무브먼트의 두께가 훨씬 얇아질 수 있었던 것. 이탈리아 브랜드의 독창성과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포지션의 위치다.

## 해리 윈스턴 프로젝트 Z8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워치메이킹 회사인 스와치 그룹과 함께 첫선을 보인 해리 윈스턴. 스와치 그룹의 기술 지원에 의해 기존의 밸런스 스프링 대신 자기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실리시엄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다는 것도 올해 신제품의 큰 변화다. 창립자 해리 윈스턴의 아들 로날드 윈스턴이 개발한, 티타늄보다 강하면서 무게는 가벼운 질리움을 소재로 했고, 해리 윈스턴의 시그니처인 레트로그레이드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44mm의 볼드한 다이얼과 3차원 구조의 다이얼은 3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다.

## 블랑팡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1735년 창립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블랑팡은 시계 기술을 예술로 이어온 탁월한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바젤에서 선보인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역시 마찬가지. 12시 방향에 위치한 까루셀은 투르비옹과 같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는 기능을 갖는데, 2008년 블랑팡이 1분마다 로케이션되는 세계 최초의 플라이 까루셀을 선보이며 다시 워치메이킹 전면에 등장했다. 올해는 까루셀에 문페이즈 기능, 그랑 피 기법을 사용한 에나멜 다이얼까지 매치해 클래식의 정수를 완성했다.

## 올리스 나르덴 듀얼 타임 매뉴팩처

올리스 나르덴은 자사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에 '매뉴팩처'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올해 새롭게 선보인 '듀얼 타임 매뉴팩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UN-334를 장착한 신뢰 깊은 모델이다. 날짜를 앞뒤로 세팅할 수 있는 빅 데이트 더블 윈도우가 특징으로, 손목에서 시계를 풀 필요 없이 간단하게 10시와 8시 방향에 놓인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마스터 코-엑시얼



오메가 씨마스터 300



불가리



해리 윈스턴



블랑팡

Project Z8



올리스 나르덴



샤넬



롤렉스



우블로



브레게

+ , - 버튼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조작 가능한 무브먼트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인 브랜드에서 극소수의 워치메이킹 장인만이 구현할 수 있다.

## 샤넬 마드모아젤 프리베 까멜리아 브로데 다이얼

단 18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우아한 다이얼의 위치. 프랑스의 자수 공방 르사주(Lesage)에서 니들 페인팅(needle painting) 기법으로 실크 소재 실로 동백꽃을 표현한,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낸 디자인이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샤넬의 가치를 하이 주얼리 위치에 섬세하게 담았다. 케이스에 5백62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GMT-마스터 II

단지 컬러의 변화만으로도 혁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고수하는 롤렉스. 올해는 세계 최초로 레드와 블루,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담은 세라크롬(Cerachrom) 베젤 디스크를 장착한 '오이스터 퍼페추얼 GMT-마스터 II'를 선보여 마니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디스크의 절반은 레드, 절반은 블루로 이루어진 세라크롬 베젤에는 하나의 베젤에 두 가지 컬러를 한 번에 입히는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 1955년 출시된 오리지널 GMT-마스터는 수많은 시계 브랜드에 영감을 줄 만큼 독보적인 디자인이기에 컬러를 달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 우블로 클래식 퓨전 8데이즈 파워 리저브

모던함에서 현대적인 클래식으로 발전한 우블로의 클래식 퓨전 라인에서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성장한 모델을 출시했다. 우블로의 트레이드마크인 모던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통 워치메이킹 기술에서 영감을 얻은 절제된 세련미를 보이는 위치, 클래식 퓨전 컬렉션의 일부로 더욱 클래식한 라인으로 완성했다. 처음으로 8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10시 방향에 있는 파워 리저브 창을 통해 구동 가능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옹 쿼터타임 퍼페추얼 3797

브레게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인 투르비옹. 시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특별한 기술을 탄생시킨 브랜드인 만큼 더 완벽하고 친절하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퍼페추얼 캘린더를 선보인다. 올해 첫선을 보인 '클래식 투르비옹 쿼터타임 퍼페추얼 3797' 모델은 더 직관적으로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각각의 인디케이션을 보기 편하게 디스플레이했다. 가장 중요한 시와 분을 표기하는 캘린더를 들어 올려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포인트.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균형미를 더하고 6시 방향의 투르비옹이 기계적인 완성도와 비주얼을 완성했다. 브레게의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모델.

## 론진 엘레강트 컬렉션

1832년 스위스 샹티미에에서 문을 연 론진의 위치는 그 무엇보다 우아함이 핵심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메인 캠페인 모델인 '엘레강트 컬렉션'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베젤의 다이아몬드와 매끈한 밴드, 화사한 머더오브벨 소재 다이얼의 조화가 아름답다. 셀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L595를 장착한 것도 매력적이다.

## 크로노스위스 시리우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

유니크 타임피스 브랜드로서 확실한 위치를 고수하는 크로노스위스는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로 유명한데 올해 새롭게 선보인 시리우스 컬렉션 역시 레트로그레이드 기술을 채택해 브랜드 고유의 독창성을 살렸다. 폴리시 베젤과 코인 베젤을 적절히 섞은 베젤 디자인에 인덱스를 모던한 바(bar) 형태로 완성해 심플하지만 브랜드의 정수는 그대로 살렸다. 12시 방향의 빅 데이트와 부채꼴을 연상케 하는 6시 방향의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창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독특한 느낌의 다크 그레이 다이얼과 테라코타 컬러 다이얼로 출시한 것도 마니아층이 두꺼운 크로노스위스의 면모를 드러낸다. 로즈 골드와 스틸, 두 가지로 선보인다.

론진



크로노스위스

**해밀턴 카키 스켈레톤**

아메리칸 스피릿과 스위스 무브먼트의 기술력을 결합한 해밀턴, 스위스 국내에 1백60여 개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시계 회사인 스위치 그룹의 자회사로 올해만도 4개에 달하는 독점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다양한 컬렉션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올해 바젤월드의 메인 컬렉션은 기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카키 스켈레톤 위치의 모던한 버전. 문자반을 가로지르는 X형 프로펠러에서 크리스털 위를 흐르는 듯 보이는 입체적인 로고까지 기존 디자인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이다. 여기에 해밀턴 독점 H-20-S 무브먼트까지 장착해 디자인과 기술력을 모두 높였다. 입체적인 다이얼을 완성하기 위해 별집 모양의 자인, 이중 톤의 바늘, 돌출된 인덱스를 선택했으며 무광의 무연탄 컬러를 새롭게 선보여 모던함을 강조했다.

**모리스 라크르와 마스터피스 그라비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선보이는 모리스 라크르와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모델은 역사나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묘사한다. 최초로 실리콘 소재로 밸런스 스탭프, 팰렛 레버, 팰렛 스탭프, 이스케이프먼트 휠, 이스케이프먼트 휠 피니시까지 생산해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다. 스틸보다 3배 더 가벼운 실리콘은 작은 질량으로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더 미래지향적인 소재. 이 특별한 ML230 무브먼트는 모리스 라크르와의 13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다.

**미도 올 다이얼 젤트 1918 리미티드 에디션**

스위치 그룹의 자회사로 클래식하면서도 실용적인 위치를 선보이는 미도가 탄생한 1918년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한정판 모델. 미도의 주요한 컬렉션들은 모두 유명 도시의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올해 선보인 '올 다이얼 젤트 1918 리미티드 에디션'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에 COSC 인증의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해 기술적인 완성도까지 갖췄다. 특히 백 케이스에 콜로세움과 올 다이얼 리미티드 에디션 로고를 새겨 소장 가치를 높였다. 영원불멸의 도시 로마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타임피스로 미도의 대표 모델이다.

**라도 하이퍼크롬 세라믹 터치 듀얼 타이머**

현대적이고 신선한 디자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위치를 선보이는 라도. 올해를 빛낼 워치인 '하이퍼크롬 세라믹 터치 듀얼 타이머'는 최첨단 소재와 놀라운 기술이 결합되었다. 유선형 디자인의 모노 블록 케이스를 장착해 크라운 없이 센서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 메인 다이얼은 케이스 위쪽의 센서를 활성화한 후 손가락으로 케이스 왼쪽 면을 쓸어주면 시간을, 오른쪽 면을 따라 쓸어주면 분을 조정할 수 있다. 스톱 다이얼은 케이스 아래쪽이 센서에 반응하는데, 메인 다이얼과 동일하게 조정하면 된다.

**티쏘 티-터치 레이디 솔라**

2013년 세계 최초의 태양광 시계를 출시한 티쏘. 자연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우아함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해 터치로 작동되는 태양광 시계를 선보였다. 손가락을 이용해 고도계, 나침반, 일기예보 등의 역동적인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고, 태양 전자판은 시계의 다이얼 뒤에 숨겨져 있어 비밀스럽다. 하단의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시계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크로노그래프, 타이머, 2개의 알람 기능, 2개의 타임 존 표시는 물론 퍼페추얼 캘린더와 백라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미를 강조해 머더오브펠 다이얼과 조화를 이룬다.

**디올 워그릴 빌드 스와**

성대한 행사를 좋아했던 크리스찬 디올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 정교하게 짜 넣은 실크 가닥 이맷단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데, 무도회 드레스의 소용돌이를 재현한 것이다. 88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디올 인베르세 11 1/2 칼리버를 장착했다.

**루이비통 에스칼 월드타임**

여행으로의 조대를 슬로진으로 월드타임 위치의 기능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루이비통의 새로운 워치. 세상의 모든 색상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특하고 화려한 다이얼은 정자인 세밀화와 유화 기법을 사용해 50시간에 걸쳐 완성했다. 붓으로 촘촘하게 30개 이상의 색상을 하나하나 입혀 100℃의 화력에서 건조한 것이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8개의 디스크로 이루어진 다이얼은 가장 바깥쪽 디스크가 도시의 이니셜을 표시하고,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구성된 중간 디스크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다. 또 가장 안쪽의 작은 디스크에는 분을 알려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노란색 화살은 기준 도시의 시와 분을 가리킨다.



# Watches for Women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요소를 그대로 살린 워치부터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주얼리 워치까지, 바젤을 뜨겁게 달군 여성 워치 컬렉션.



**소파드 해피 스포츠 오토매틱 조일러리**

2013년 선보인 해피 스포츠 오토매틱이 컬러풀한 주얼리를 만나 더욱 화려해졌다. 바젤에는 바게트 컷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세팅되어 있으며 36mm 케이스 안에서는 루비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자유롭게 움직여 역동적이다. 매캐니컬 셀프윈딩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부세론 리플레 품폰 워치**

하이珠寶의 워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인 부세론의 리플레 품폰 워치. 폭 넓은 직사각형 케이스, 심플하면서도 유기감 있게 만든 다이얼, 금으로 세공한 고드름, 카보숑의 은밀한 반짝임까지 고장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해 선보인 부세론의 대표 아이콘 워치 리플레에 19세기 부세론의 하이珠寶의 품폰 컬렉션을 더해 화려하게 완성했다. 오토 쿼터에서 영감을 받은 품폰 컬렉션은 직물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게 파베 세팅했다. 워치에 달려 있는 태슬은 시계에서 분리해 펜던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스와로브스키 시트라 크로노**

전체 베젤을 둘러싸고 있는 크리스탈 파베의 반짝임이 아름다움과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대중적인 디자인의 워치. 38mm 케이스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췄고, 40개의 투명 크리스탈을 세팅한 스타인리스 스틸 또는 로즈 골드 PVD 코팅 스타인리스 스틸 케이스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리프 할루시네이션**

로렌스 그리프 회사가 직접 고안한 5천여개의 다이아몬드와 57개의 상단의 할루시네이션을 공개해 다이아몬드의 원의 자리를 지킨 그리프. 최상성 높은 멀티컬러 다이아몬드로 제작한 이 타임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차와 가격을 자랑한다. 1백10개에 달하는 최규한 컬러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 낸 만화경 이미지를 완성해 주얼리 워치 제작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펜디 카멜레온**

펜디의 대표적인 핸드메이드 7랩레온 백에서 영감을 얻어 브라운 로고를 그대로 담은 유선형 케이스가 인상적인 대담한 디자인의 워치. 이탈리아 로마의 스키타와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세팅, 스위스 메이저의 완성도를 하나로 결합해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한다. 부드럽게 완성한 유선형 케이스는 마치 실크처럼 매끄럽게 손목을 감싸 착용감이 편안하다.

**페라기모 버블 컬렉션**

디자인과 소재의 우아한 조합, 대중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아이콘인 버블 컬렉션은 시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해 전방적인 스타일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다이얼 컬러가 심메인, 샬비, 다크 브라운, 블랙 등 네 가지로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1 바젤월드로에서 드레스시 레흐마스케의 무브먼트를 제작한 워치메이커가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시계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2 셀프윈딩 칼리버 H1925.  
3 유리 공예 장인이 유리 줄기로 밀레피오리 패턴을 만드는 모습.  
4 정교한 유리 공예 과정을 거쳐 완성한 아쓰 밀레피오리. 다이얼의 환상적인 색채는 에르메스 실크 스퀘어의 화려함을 연상케 한다.

**에르메스 드레스시 레흐마스케 & 아쓰 밀레피오리**

최근 본격적으로 진화해 시계업계로 진출해 특유의 장인 정신과 유니크함으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에르메스. 올해 바젤월드는 획기적인 무브먼트를 소개하며 상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용자가 알람 시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셀프윈딩 칼리버 H1925를 장착한 '드레스시 레흐마스케' 위치를 발표한 것.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를 표시하는 핸즈 뒤에 분을 표시하는 핸즈가 숨어 있어 미치 핸즈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나, 시계 옆의 버튼을 누르면 시침이 움직여 시간을 표시한다. 일반적인 브랜드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콘셉트도, 시계에 꽃기는 현대인들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 에르메스에선 구현 가능한 워치라 할 수 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듀얼 타임 창이 사라진다 사라지는데, 이는 무브먼트의 독창적인 구조로 완성된다. "무한한 개인의 자유를 열어주고, 한실에서 탈출해 진정한 중요한 순간을 옮겨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한다"라는 에르메스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재치 넘치는 워치다. 기존 아쓰 라인에 새로운 소재를 대안한 아쓰 밀레피오리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미치 단면이 아름다운 캔다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유리 소재를 활용해 다이얼을 만들었다. 크리스탈부터 에-벨까지 연속적인 레이아웃으로 다양한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유리 줄기를 모아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이탈리아어로 '1천 개의 꽃'이라는 뜻을 지닌 밀레피오리(Millefiori)를 다이얼에 접목해 에르메스만의 유니크함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아쓰 라인인 시계와 유리 공예의 특별한 조우를 보여준다. 에디터 배미안





# Vision of time

지난 4월 바젤월드에서 만난 샤넬의 새로운 시계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야기했다. 샤넬의 시그니처 워치인 J12에 365라는 콘셉트를 더해 현대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의 가치를 제안하는 모델로, 외형은 비주얼이지만 그 의미는 명백히 달랐다. 모두가 더 어렵고 복잡한 시계를 추구하는 바젤월드의 한복판에서 샤넬은 왜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것일까.



## 바젤월드, 그 안의 새로운 발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얼리 워치 박람회인 바젤월드는 직접 가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능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계 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계 부품을 만드는 기계부터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재, 이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장인과 마케터, 그리고 시계를 구매하는 바이어까지 '시계'를 만들고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젤월드다. 이곳을 방문하기만 해도 시계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내용부터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요소까지 망라되어 있다. 이 박람회를 여러 번 방문해보면 워치메이커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수많은 브랜드를 만나게 된다. 시계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하다 보면, 가장 우선 순위에 놓이는 것은 기술이다. 처음에는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 예술로서의 시계(중력의 영향을 줄이는 투르비옹이나 까루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시계 예술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제작, 혹은 자기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리곤 밸런스 스프링 개발 같은 최진 기술의 개발이라는 요소에 집착하게 된다. 마치 기술 개발만

이 최상의 가치인 듯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바젤월드의 수많은 주요 브랜드가 이 기술에 절대 기준을 두는 지금, 샤넬 워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J12 365다.

## 샤넬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철학

세라믹으로 만든 모던한 워치 J12. 샤넬 워치를 대표하는 이상징적인 시계는 매우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갖췄고,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메인 스트림에 데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샤넬은 올해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시계를 선보이기보다 기존의 제품에 더 확실한 철학을 부여하길 원했다. 모두 기계로서 시계의 가치에 대해 논할 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시계, 아니 시간을 바라보며 '시간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36.5mm의 다이얼 사이즈에 매일매일을 즐기는 활동적인 현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워치인 샤넬 J12 365는 기존의 J12와 외형은 유사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에 대해 바젤월드의 샤넬 부스에서 만난 샤넬 워치 총책임자 니콜라 보(Nicolas Beau)는 "샤넬 워치는 굳이 완전히 'New(새로운 것)'을 선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는 지금 구매할 제품을 충분히 즐기고 애정을 줄 시간이 필요하죠. 유행에 편승해 아무 제품이나 선보일 수는 없어요. 시계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디자인의 핵심을 이어가면서도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콘셉트까지 신중하게 고민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브랜드의 정신에 따라 J12 365가 탄생했는데, 철학을 중요시한다고 기계적 완성도를 소홀히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는 샤넬은 무브먼트의 완성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라인이기에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가벼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담아 세심하게 완성했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워치 캠페인까지 바젤월드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더블 스프레드 페이지의 왼쪽은 아름답게 표현한 인생의 순간들, 오른쪽에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샤넬 워치의 다이얼이 클로즈업되어 있다. 물론 사진 속 행위마다 모두 다른 시간을 기록한다. 일반적인 시계 광고 속 모든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캠페인은 기존의 J12는 물론 프리미엄, 마드모아젤 프리메, 새로운 J12 365까지 샤넬의 모든 워치 라인에 등장하는 캠페인이지만, J12 365의 콘셉트가 이 프로모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사진작가 패트릭 드마셀리에와 함께 제작한 캠페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영원을 담고 있기에, 오직 이 순간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샤넬 워치는 바로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한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있고 있던, 시간에 대한 가치를 환기시키며 브랜드의 고유한 비전까지 전하는 것이다.

## 일상의 모든 순간에, 샤넬 J12 365

샤넬 워치 전체를 아우르는 광고 캠페인과 함께 등장하는 J12 365의 이미지를 보면 이 시계의 의미는 더욱 확실해진다. 집을 찾는 손님을 위해 파일을 지를 때, 카드 게임을 하거나 물건을 고를 때,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순간순간에 샤넬 J12 365가 함께한다. 이 이미지는 반드시 샤넬 J12 365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즐기는 시간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한다. 바쁜 현대 여성들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적인 행위를 끝내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잊고 있다. 단지 흐르고 사라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손목 위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휴대폰으로 정보로서의 시간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기에 이 광고 캠페인은 마치 옛 추억, 잊고 있던 책상 속 사진을 찾아낸 것처럼 반갑게 느껴진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모바일 메시지와 SNS의 홍수 속에서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현대 여성에게 1년은 3백65일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다고 말하는 샤넬의 캠페인은 물론 고도의 마케팅에 따른 것이지만 무조건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여타 워치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누군가는 이 광고 캠페인을 보며 이 역시 패션, 즉 유행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었지만 패션 하우스에서 시작해 주얼리, 향수, 화장품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샤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니콜라 보의 샤넬이 추구하는 시계 사업의 방향은 다른 브랜드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샤넬은 과거하기 위한 기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느냐고요? 그건 아름다움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바젤월드에서 샤넬은 고유의 뉴 베이지 골드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행에 편승해서가 아니라 샤넬이 주로 사용하는 세라믹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골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의 옐로 골드는 너무 밝고, 로즈 골드는 붉은 기가 돌지요.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위해 뉴 베이



1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J12 365 워치의 새로운 캠페인. 각 사진마다 'ICANREAD', 'TWINDRINK', 'WORKINGMUM'과 같은 워치 있는 제목이 붙어 있다. 기계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존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캠페인으로 샤넬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2, 3, 5 J12 365 워치의 다양한 버전.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을 기본으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뉴 베이지 골드를 애치한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4 샤넬 워치 사업부 총괄 디렉터인 니콜라 보. 모두 라이선스 사업이나 패션 시계에 몰두했던 1980년 대부터 오직 스위스 메이더의 진한 시계만 추구해온 것이 지금 샤넬 워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비결이라 이야기한다. 6, 7 2014년 바젤에서 첫선을 보인 샤넬 워치 캠페인. J12 365를 비롯해 프리메, 마드모아젤 프리메까지 샤넬의 모든 워치 캠페인이 등장한다. 왼쪽은 인생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이, 오른쪽은 이 기념적인 순간을 기록한 샤넬 워치의 다이얼이 등장해 조화를 이룬다. 기술로서의 시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 골드를 디자인했고, 올해 선보인 다양한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새로운 소재나 기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계에 관심이 많지요. 이렇게 비주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샤넬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단지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샤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관성'이라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시계를 선보인 이후 25년 동안 유행은 물론 공장, 마케팅까지 장기적으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했기에 이렇듯 새로운 콘셉트를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젤월드에서 만난 샤넬 워치의 수장이 보여준 시계에 대한 진지한 자세, 아름다움과 청정성, 철학까지 모두 갖춘 샤넬 워치의 새로운 세계는 매우 그 자체였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보여준 샤넬의 도전은 이제 우리가 만날 다음 단계의 하이엔드 워치 시대를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을까. 에디터 배미진



L'INSTANT CHANEL



L'INSTANT CHANEL

# A Fine Play

시원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멋진 스윙,  
싱그러운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푸른 잔디.  
페어 플레이를 즐길 시간이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플라워 패턴 피케 셔츠,  
화이트 니트 베스트, 플라워  
패턴 스커트, 하트 패턴  
토트백 모두 아다바트.



(남) 네이비 피케 셔츠, 그레이  
프린트 베스트, 화이트 골프 슈즈, 퍼플  
캐디백 모두 엘모드, 레드 프레임  
선글라스 트리터, (여) 갈색 시스루  
를, 화이트 베스트, 그레이 패턴  
레깅스, 그레이 골프 슈즈, 화이트  
클러브, 골프 클럽 모두 엘모드.

(남) 블랙 & 화이트 피케 셔츠,  
옐로 팬츠 모두 **만상웨어**,  
(여) 슬리브리스 피케 셔츠,  
사스루 집업 재킷, 과일 패턴  
스커트, 화이트 글러브  
모두 **만상웨어**.



블루 피케 셔츠, 그레이 배색의  
화이트 집업 베스트, 블루 체크 팬츠,  
블루 골프 슈즈, 블랙 & 화이트  
글러브, 레드캐디 백, 골프 클럽  
모두 **나이키골프**.



(여) 코발트 블루 집업 재킷, 네이비 체크 패턴 피케 셔츠, 체크 스커트, 옐로 글러브, 그레이 & 베이지 골프 슈즈, 그레이 선 캡 모두 맥 니콜리우스.  
 (남) 체크 셔츠, 블루 테일러드 재킷, 블랙 팬츠, 화이트 골프 슈즈, 레드 캐디백 모두 맥 니콜리우스. 메탈 워치 부로바 아이유트론 by 갤러리아몰락.



스트라이프 패턴을 기미한 터틀넥, 그레이 베스트, 베이지 스커트, 화이트 글러브 모두 보그너.



화이트 긴팔 롬, 블랙 zip업 재킷,  
화이트 팬츠, 블랙 & 화이트  
글러브 모두 타이틀리스트,  
화이트 선글라스 트리티.

(남) 그린 컬러 피케 셔츠, 화이트 팬츠,  
블랙 캐디 백 모두 타이틀리스트.  
(여) 연두색 슬리브리스 피케 셔츠,  
화이트 스커트 모두 타이틀리스트,  
화이트 스포츠 시계 타이맥스 by 갤러리아몰락.

보그너 02-310-1731  
만상웨어 02-772-3690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책 니콜라우스 옐로드 1588-7667  
제이민드버그 02-3479-1909  
아다버트 02-516-2526  
나이키 골프 080-022-0182  
트리티 02-3446-8556  
갤러리아몰락 02-3284-1300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김은주  
모델 김영, 박세라(케이플러스)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인, 진성훈  
에디터 권유진

**For Business Meeting**

“발리의 브리프케이스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중요한 날이면 라이트 그레이 컬러 수트를 고르는데, 이때 스마트한 네이비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네이비 브리프케이스, 레이스업 슈즈 모두 발리, 그레이 재킷과 슬림 팬츠, 블루 셔츠, 타이, 넥타이 모두 알레벤티.



**For Weekend Travel**

“발리의 새로운 여행용 가방은 제 삶에 활력을 충전하는데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워크엔드 백이지만 모양새가 단정하고 모던해, 오프 타임 모임에도, 영감이 떠오르는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잘 어울리니까요.”

워크엔드 백, 스니커즈 모두 발리, 스웨이드 패치 디테일 재킷, 데님 칼라 피케 셔츠, 그레이 카고 팬츠, 넥타이 모두 알레벤티.



**For Free Time**

“아랫부분에 발리 고유의 스트라이프가 살짝 들어간 캐주얼 브리프케이스는 어떤 트래블 룩에나 잘 어울리니 여행을 떠나는 제 발걸음도, 머릿속도 한결 쾌청하게 해준답니다.”

브리프케이스, 보트 슈즈 모두 발리, 집업 베스트, 체크 프린트 셔츠, 프린트 티셔츠, 하프 카고 팬츠, 체인 모두 알레벤티.



**For Sports Training**

“패브리 스트랩이 편안한 발리의 메신저 백은 오랜 친구처럼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즐겨 입는 트레이닝 팬츠에도, 편안한 청바지에도 모두 잘 어울리니 여가 시간에는 항상 발리의 메신저 백과 함께하게 되죠.”

스트라이프 스트랩 메신저 백, 블랙 스니커즈 모두 발리, 스웨트 후디, 파케 셔츠, 트레이닝 팬츠 모두 알레벤티.



# 24 hours 7 Days

최고의 가족만을 다뤄온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발리. 피아니스트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윤찬이 발리와 조우했다. 비즈니스 룩부터 워크엔드 룩까지 완벽하게 어울리는 발리의 모던한 변화에 주목할 것.

고급스러운 가족의 질감이 살아 있는 브리프케이스와 산뜻한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로퍼는 감각적인 비즈니스 룩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차례로) 베이지 컬러 가죽 벨트, 심플한 디자인의 장지갑, 현금과 카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는 미니 클립 겸 카드 지갑, 네이비 컬러 브리프케이스(37x30cm), 블랙 클러치 백(32.5x27cm), 로퍼 모두 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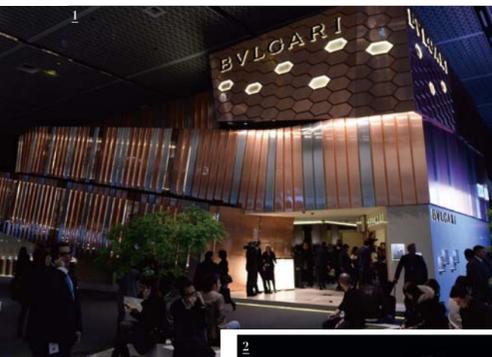
인물 사진: 박승민, 제품 사진: 박민우, 스타일링: 박민우

발리만의 시그니처인 테이핑 장식을 모던하게 해석한 토트백과 샌들을 주목할 것. 카디란 트래블 백과 가벼운 스카프, 편안한 스니커즈는 워크엔드 룩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트랩 샌들, 브라운 컬러 브리프케이스(43x30cm),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스니커즈, 동그란 형태의 트래블 백, 베이지 컬러 롱 머플러, 산뜻한 블루 컬러 스웨이드 벨트 모두 발리, 에디터 이예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935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22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25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239  
 신세계백화점 충정점 041-640-5003



1 바젤월드 메인 홀 1층에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었던 불가리의 개관 부스. 밤의 형태를 연상케 한다. 2, 3 프레스들의 감탄을 자아낸 옥토 파니시모 투르비용 워치. 이 같은 워치를 완성하기 위해 불가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다른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구조의 투르비용을 설계했다. 4, 5 바젤월드의 메인 컬렉션인 루체아 워치, 불가리 고유 감성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해 우아하고 과감하게 완성했다.



# Haute timepiece

올해 창립 1백30주년을 맞은 불가리는 바젤월드에서 다양한 시계를 선보이며 역사의 가치와 기술적 완성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탈리아 브랜드 고유의 유니크함과 워치메이커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불가리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 불가리 워치의 새로운 헤로인, 루체아 워치

스위스 바젤월드의 메인 1번 홀 1층 입구,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디자인의 부스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감없이 드러낸 불가리. 전시장 외곽은 불가리의 대표 아이콘인 세르펜티와 투보가스 주얼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82m에 이르는 거대한 뱀이 건물을 감싸듯 견고하게 제작되어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올해 불가리의 새로운 워치들은 워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장 먼저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뱀 모티프의 주얼리 세르펜타에서 영감을 얻은, 밴드가 돋보이는 루체아 워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 여성 컬렉션으로 등극했다.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luce'와 라틴어 'lux'를 합성한 '루체아(Lucea)'라는 이름만큼 은은한 빛을 발하는 워치 케이스와 퍼플 컬러의 카보숑 컷이 여성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뱀에서 영감을 얻은 분절 구조의 밴드 라인, 원형의 다이얼과 직선 모티프의 연결로 이루어진 밴드의 매치는 불가리가 지닌 대범함의 코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컬렉션이지만 클래식한 스틸 버전부터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파베 버전까지 총 12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했다.



## 품격 있는 건축미, 옥토 파니시모 컬렉션

1백10개의 단면으로 이루어진 팔각형 케이스가 시그니처인 옥토 컬렉션 역시 올해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새롭게 선보였는데, 품격 있는 건축미를 구현한 옥토의 울트라 썬 라인, 옥토 파니시모 컬렉션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움 그 자체였다. 보통 울트라 썬 워치는 원형의 디자인이 많은데, 일단 다각형의 케이스 안에 극도로 얇은 무브먼트를 구현했다는 것부터가 독보적이다. 인하우스에서 제작한 2.23mm 두께의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는 불가리가 이탈리아 브랜드로서는 전문 시계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는 증거다. 옥토 파니시모 컬렉션에 투르비용을 탑재한, 마치 종잇장처럼 얇은 옥토 파니시모 투르비용은 바젤월드를 찾은 많은 기자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마치 실제 워치가 아닌, 3D 그래픽을 보는 것처럼 얇은 투르비용의 존재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 단순히 얇은 것을 넘어 둥근 형태의 투르비용을 조바형 워치에 담아낸 불가리의 노력이 여타 워치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했다는 확신을 얻게 한 모델이다. 두께 1.95mm에 투르비용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 주얼리에 기반한 장인 정신과 스위스 메이드의 기술이 결합되어 성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워치 브랜드로서 불가리의 2015년 바젤월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에디터 배민진



# Unique time machine

유니크 워치 시장의 새 지평을 연 리차드 밀, 오는 5월 중순 창립자 리차드 밀이 한국을 찾는다. 장충동 신라 호텔 아케이드에 새롭게 오픈한 부티크의 시작을 알리고, 이번 방문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오로지 하나의 가치를 위한 워치, 리차드 밀

매뉴팩처에서 완성한 상징적인 모델로 거듭난 브랜드, 리차드 밀(Richard Mille). 마치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들 듯 세심하게 소량의 워치만 선보이는 이 독특한 브랜드는 국내에 입성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시계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계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워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충동 신라 호텔 아케이드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하며 국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장에 진출한 리차드 밀은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계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2001년 창립자의 이름이자 브랜드의 이름인 리차드 밀의 이니셜 RM을 붙인 최초의 시계, RM001 투르비용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특별한 브랜드. 20만유로라는 엄청난 가격에 하나의 제품만 선보였지만 수백 개의 선주문을 이끌어내며 희소 가치를 원하는 워치 애호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독립 브랜드 시계 역사에 새로운 기준점이 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50여 개가 넘는 고가워치 시계를 선보인 리차드 밀은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고급 시계 제조 전통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한발 앞선 미래를 제시했다. 극한의 충격이 가해지는 풀로 경기를 워치와 비행을 위한 에어비에이 워치, 여행자를 위한 월드 타임 워치 등 기술적 혁신, 예술적이고 건축적인 구조, 수공으로 마무리하는 고급 시계의 전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담긴 시계는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세계 최초로 F1 경주용 자동차나 항공 산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소재를 시계 분야에 응용한 것도 리차드 밀이었다.



있다. 이 무브먼트는 2007년 브라질 태생의 F1 자동차 경주 선수인 펠리페 마사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F1 경주용 자동차에 적용한 고도의 공학 기술이 지닌 뛰어난 정확성을 시계에 재현해낼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플라야 벡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한 워치로 크로는 핸즈를 멈추지 않고 바로 처음으로 되돌려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극도의 제한적인 모델은 소량으로 생산하는 리차드 밀에서 한국을 위한 한정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리차드 밀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워치는 시계를 넘어 예술품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장이 더 큰 가능성에 다가섰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리차드 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에디터 배민진



1 리차드 밀의 한국 진출을 기념해 선보인 RM001 코라이 리미티드 에디션. 소량 생산을 고집하는 브랜드 철학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시된 제품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2 장충동 신라 호텔에 위치한 리차드 밀 부티크. 미래지향적인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다. 3 독보적인 완성으로 독립 브랜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브랜드 창립자 리차드 밀.

한국 워치 시장의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을 위한 한정판으로 선보인 모델은 'RM011 코라이 리미티드 에디션'. 다이얼 디자인만 보아도 태극의 파란색과 빨간색을 모티브로 한 것을 알 수

# New attitude

진정한 우아함은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발산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너무 과하거나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개성을 잃지 않은 시크하면서 무심한 모습은 모던함과 여성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브랜드 끌로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이연희란 여배우를 표현하는 DNA다.

## 우아함과 쿨한 에티튜드를 대변하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눈길이 가는 스타일이 있다. 무심하게 어깨에 특 킷진 가방, 어떠한 활동도 제약하지 않을 듯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아웃핏을 입은 여인은 모던함과 편안함, 우아함을 모두 아우르며 트렌드 중심에 서있는 끌로에가 추구하는 여성상이다.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지만 그 속에 자리 잡은 우아함과 자신감. 바로 이런 쿨한 에티튜드가 끌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켈러(Claire Weight Keller)가 추구하는 신념이자 끌로에의 아이덴티티인 것. 끌로에에는 2014 S/S 컬렉션을 통해 끌로에만의 에티튜드를 담은 가방 라인을 선보인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클레어(Claire)' 백과 실용성과 스타일리시함을 겸비한 베이리(Baylee) 백이 바로 그 주인공. 군더더기 없이 모던하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클레어 백은 이번 시즌 끌로에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골드 바를 매치해 백 전반에 강렬한 악센트를 더했다. 가방 밑바닥을 잡고 스트랩을 손목에 가볍게 휘감아 클러치로 연출하면 무심하면서도 완벽한 끌로에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백 중앙에서 마주치는 럭셔리한 체인 브레이슬릿 지퍼가 돋보이는 베이리 백을 눈여겨볼 것. 가방을 드는 방법에 따라 부드러운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변하며 멋을 배가시키는 디자인으로,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유연한 형태에서 끌로에만의 에티튜드가 느껴진다.

## 끌로에의 뮤즈, 배우 이연희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기력과 재능을 발산하며 존재감을 높여온 배우 이연희.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운 이목구비와 투명한 피부로 늘 관심을 받는 그녀이지만, 외모보단 연기력과 나이에 어울리는 균형감 있는 감성, 자아로 인정받길 원하는 배우다. 자신의 연기력이 갑자기 인정받길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노력해서 꾸준히 성장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순간이 올 것이라 확고한 믿음으로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그녀는 또래의 배우와는 달리 조금씩이라도, 느슨하지도 않게 자신의 길을 무심히 견고했다. 이런 그녀의 행보는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무심한 듯 완벽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끌로에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다. 이번 시즌 끌로에의 뮤즈로 선정된 이연희는 편안한 표정과 에티튜드로 끌로에만의 감성을 화보에 녹여냈다. 소녀다운 풋풋함과 함께 내추럴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우아함을 지닌 그녀는 끌로에가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을 완벽히 표현했다. 길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꿈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그녀. 그런 자신감에서 묻어 나오는 이연희만의 우아함은 끌로에를 표현하기에, 그리고 20대 여배우의 미래를 논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모습이다. 문의 02-515-1196 에디터 권유진



1 레드와 퍼플 컬러 조합을 이루는 끌로에 클레어 미니 백, 화이트 드레스와 액세서리 모두 끌로에. 2 지퍼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끌로에 베이리 미니 백, 화이트 블라우스와 쇼츠, 액세서리 모두 끌로에. 3 미니멀한 디자인과 중앙의 골드 바가 시그니처인 클레어 미니 백, 블랙 재킷과 블라우스, 팬츠, 액세서리 모두 끌로에.



# Fashion for the n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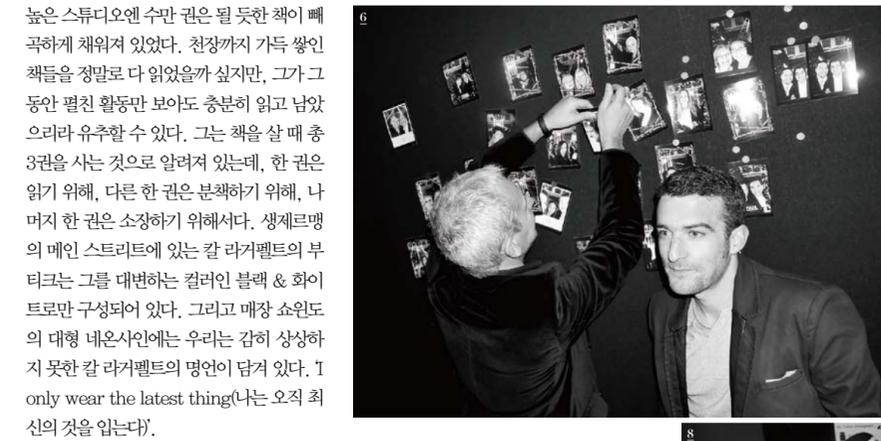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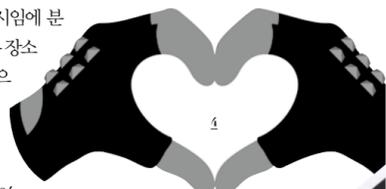
1933년생 백발의 디자이너가 지금 최전방의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것은 물론, 모든 셀러브리티가 찬성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클럽 파티 주최자이자 자신만의 디지털 언어를 만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 칼 라거펠트라면 가능하다. 칼 라거펠트가 진두지휘한 파리의 향수 론칭 행사에서 그의 진면목을 목격했다.



라인의 이모티콘과 공개하며 조만간 향수를 론칭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과연 어떤 콘셉트의 향수일까, 그가 만든 향수라면 어떤 모습일까. 칼 라거펠트가 만든 향수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유니크한 니치 향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향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면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보라고는 오직 4백 명이 넘는 프레스와 패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론칭 이벤트라는 것.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스타일 조선일보>가 취재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이벤트를 칼 라거펠트가 직접 진두지휘한다는 것이었다.

### 칼 라거펠트의 사적인 취향을 탐하다

파리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칼 라거펠트가 선호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주요 일정인 정도로 사적인 취향으로 짜인 파리 투어는 오로지 칼 라거펠트의 시선으로 본 예술적인 파리를 둘러보는 코스였다. 칼 라거펠트가 가장 사랑하는 파리의 생제르맹(Saint-Germain)에는 그가 즐겨 가는 카페 드 플로르(Café de Flore)와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칼 라거펠트 부티크, 수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이뤄지는 그의 스튜디오, 그가 직접 운영하는 서점 7Li이 모두 모여 있다. 생제르맹에 리, 파블로 파카소 등 수많은 문인들이 드나들었던 카페 드 플로르에 갔을 땐 칼 라거펠트의 철학적인 면모를 엿보았고, 뒤편 스트리트 7번지에 위치해 7Li라고 이름 지은 칼 라거펠트의 서점에선 질서 정연하게 놓인 인테리어, 사진,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통해 최근 그의 관심사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책벌레라고 칭할 만큼 책은 칼 라거펠트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다. 이 사실은 서점 안쪽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더욱 명확해진다. 총히 3층 건물 높이 정도는 되어 보이는 천장



### "향수는 후각을 위한 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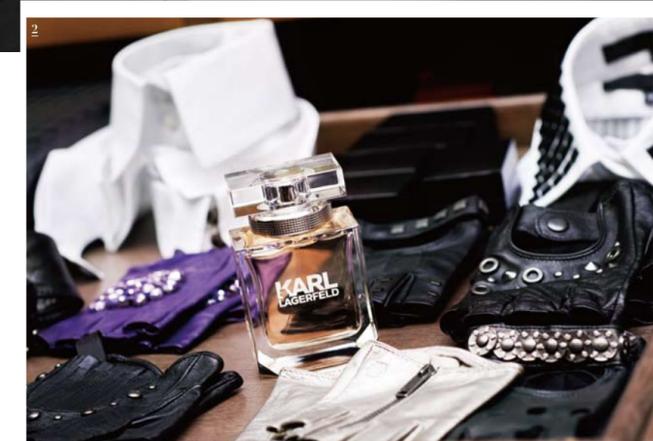
지난 3월 파리의 숨겨진 명소인 팔레 브롱나يار(Palais Brongniart)에서 개최된 파티의 호스트는 바로 이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 칼 라거펠트였다. 다시 상기시키자면 칼 라거펠트는 1933년생, 우리 나이로 82세다. 디스코 볼로 화려하게 장식한 조명, 수백 잔의 칵테일, 일레트로닉 음악. 그리고 이곳의 화려정점은 생생한 현장들 사진으로 기념할 수 있는 포토 부스와 칼 라거펠트의 디지털 언어인 이모티칼(Emotikar) 애플리케이션이었다. 파티에 참석할 수백 명의 기자, VIP, 패션 관계자는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이모티칼을 보내며 순간을 즐겼다. 그러던 중 모두가 그렇게 금금해하던 향수가 베일을 벗었다. 관능적이고 섹시한 광고 컷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향수는 하나가 아닌 2개였다. 칼은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을 재확인시키듯 여성용과 남성용, 한 쌍의 향수를 론칭한 것. 향기를 맡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다. 상상외로 대중적인 향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유니크한 향을 예상했던 건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나 대중과 소통하길 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패션을 만들기를 원했기에 이번 대중적인 향수를 출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칼의 향수는 직접 몸에 뿌렸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첫 향에서 느껴지는 신뜻함,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관능적이고 섹시한 진향에서 그의 완벽한 성격이 묻어난다. 핑크 보틀의 여성 향수는 싱그럽고 우아한 그린 플로럴 향을 품고 있는데, 칼 라거펠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큼한 레몬 향과 로즈 부케, 그리고 머스크와 엠버 우드의 조우는 현대적이고 모던하다. 라벤더와 만다린 제스트의 향에 이삭한 사과와 바이올렛 잎, 스페이시한 샌달우드를 더한 투명한 블랙 보틀의 남성용 향수는 세련됨과 동시에 우아하고 섹시하다. 칼 라거펠트는 자신의 패션을 하나의 룩, 태도, 관습으로 만든 패션 아이콘이다. 그가 창조한 두 향수는 우아함과 클래식함을 모던하게 트윌스트하며 그의 스타일을 반영한다. 이처럼 남성용 여성 모두의 이목을 끄는 향, 품질 높은 재료만 사용하는 고집, 우아한 디자인과 메탈의 모던함까지, 이 모든 것에서 칼 라거펠트만의 시그니처를 찾을 수 있다.

### 드디어 칼 라거펠트와 마주하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그를 인터뷰하고 나온 각국의 유명 매체 기자들은 마치 꿈속에서 만난 듯 있었던 스타를 만난 듯 한껏 흥분된 목소리로 "꿈만 같다",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마지막 순서로 인터뷰장에 들어갔을 때 사야에 들어온 칼 라거펠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2시간에 걸쳐 이어진 인터뷰로 지쳤을 법도 한데 테이블에 한쪽 팔을 기댄 채 스타프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의 모습에선 지친 기색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칼 라거펠트는 약속을 진내며 형식적인 인사 대신 본인이 디자인한 에디터의 펜디 드레스를 칭찬했다. "Oh, I like your dress(오, 나는 당신의 드레스가 좋아요)" 파티에 참석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옷을 입었음에도 그가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은 한국의 기자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가 형식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 앞에 마주한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의미다. 바로 이런 그의 진심 어린 에티켓에서 감동과 반전을 느낄 수 있었다. 종이나 미디어의 벽을 깨고 실제로 직면한 그는 진정으로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디자이너였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번 신제품 향수의 콘셉트와 일맥상통한다. 칼 라거펠트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 뿌리질 기분이 좋아지는 향을 만들고자 했다. 이런 그에게 향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향수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다. 여성 향수건 남성 향수건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향수는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자 후각을 위한 패션이다. 오늘날 패션은 단순히 옷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향수까지도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것이 향수가 브랜드의 라벨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다. 향수는 옷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향은 무엇일까. "아이리스 향을 가장 좋아한다. 가족이나 탤런트 향, 심지어 담배 향도 좋다. 반면 매우 베이식하고 클래식한 향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향수는 충분히 많다. 나는 모던하고 새로운 향을 선호



1 칼 라거펠트의 스튜디오에는 총히 수만 권은 될 듯한 책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그곳에서 포즈를 취한 백발의 인물은 바로 패션의 전설 칼 라거펠트. 2 칼 라거펠트 포토 부스인 포토 45ml 9만원. 3 인터랙티브 모던한 그의 직업살에선 아이디어를 위한 스케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4 칼 라거펠트의 디지털 언어 '이모티칼(Emotikar)'. 5 칼 라거펠트의 사적인 취향으로 짜인 투어 일정을 담은 파리 지도. 6 수많은 패션 피플들은 파티장에 설치된 포토 부스에서 그들의 생생한 현장들 사진으로 기념했다. 7 #KARLPARFUMS 파티의 주최자 칼 라거펠트. 의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모두 칼 라거펠트만의 시그니처다. 8, 9, 10 파티장 한편에 마련된 이모티칼 부스와 향수 코너에서는 많은 취재진과 패션 피플들이 파티의 열기를 즐겼다. 11 에디터가 칼 라거펠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자켓 명패. 12 칼 라거펠트 포토 부스 50ml 9만원.



### "나는 살아 있는 상표다", 패션의 전설 칼 라거펠트

전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 펜디 뒤에는 패션계의 거장, 칼 라거펠트가 있다. 펜디의 FF(Fun Fur) 로고와 여성들의 로망인 샤넬의 백까지, 매 시즌 우리가 열광하며 가까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손을 거친 것이다. 이 페이지에 실린 그의 사진을 살펴보자. 타이탄 스किन에 뺨뺨한 화이트 칼라의 셔츠, 로큰롤 무드가 느껴지는 실버 주얼리, 스타일로만 봐서는 20대 청년 같지만 백발을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을 한 이 노장은 바로 1933년생 칼 라거펠트다. 그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모르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미 샤넬, 펜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레이블인 칼 라거펠트까지 3개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수십 년간 메이저에서 활동해온 그가 디자인하고 탄생시킨 스타일은 패션계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사든 그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칼 라거펠트는 말한다. "나는 패션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다. 제 아무리 신사시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필적하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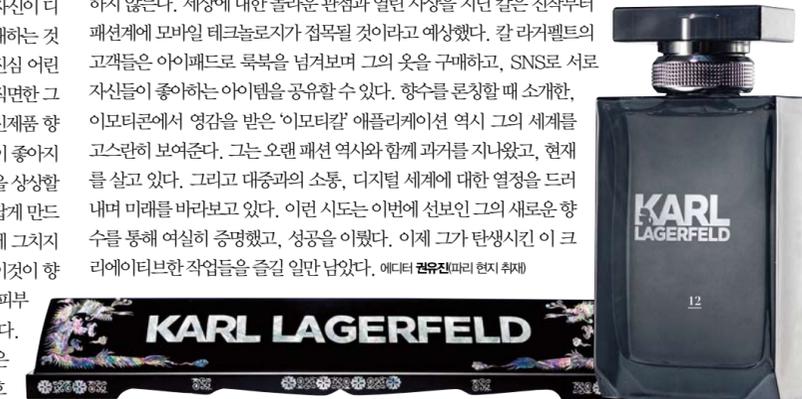
### 베일에 쌓인 향수, #KARLPARFUMS

칼 라거펠트가 그의 이름을 건 향수를 론칭한다는 소식에, 새로운 향수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재미난 사실은 이 소식이 한 열혈 팬이 향수 로고(#KARLPARFUMS)를 소셜 네트워크에 유출하면서 알려졌다는 것이다. 당황한 칼 라거펠트 측은 어떤 향수인지, 여성 향수인지 남성 향수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칼 라거펠트가 디지털 언어로 표현한 향수

한다." 끊임없이 샘솟는 영감의 원천이 궁금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내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취향에 머무르는 것이 두렵다." 칼 라거펠트는 에디터가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자켓 명패를 선물 받고 감격하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나는 사필과 작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 과거를 지나 현재, 미래까지 바라보는 통찰력

럭셔리 마켓의 중심에서 있는 칼 라거펠트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향수를 내놓았다는 것은 단지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그가 한국에서 온 에디터를 진심으로 대했듯이 패션은 사랑하는 대중에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테이스트를 강요하지 않는다. 향수를 포함한 패션은 소수만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본인도 좋아하고, 남들도 좋아할 만한 향수로 대중에게 다가선 것이다. 특히 젊은 이들과 소통하기를 즐기는 그는 디지털 세계에 폭 빠져 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놀라운 관점과 열린 사상을 지닌 칼은 진작부터 패션계에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접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칼 라거펠트의 고객들은 아이패드로 룩북을 넘겨보며 그의 옷을 구매하고, SNS로 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다. 향수를 론칭할 때 소개한, 이모티콘에서 영감을 받은 '이모티칼' 애플리케이션 역시 그의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오랜 패션 역사와 함께 과거를 지나왔고, 현재를 살고 있다.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디지털 세계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도는 이번에 선보인 그의 새로운 향수를 통해 여실히 증명했고, 성공을 이뤘다. 이제 그가 탄생시킨 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즐길 일만 남았다. 에디터 권유진(마리 테리 취재)



# Exotic scent

대담한 컬러와 혁신적인 조합, 이국적인 페이즐리 프린트로 대변되는 에트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담아낸 향수 컬렉션을 국내에 출시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에트로의 향취에 흠뻑 취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페이즐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에트로

오로지 페이즐리 무늬 하나만을 다양한 각도에서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브랜드가 있다. 한눈에 봐도 누구나 알 만한 이국적인 페이즐리 무늬는 수많은 가방을 비롯해 옷, 스카프, 액세서리 등 전 컬렉션을 아우르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했다. 확실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가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에트로의 예이다. 1968년 제롤라오 친모 에트로가 설립한 에트로는 인도의 페이즐리 문양과 함께 역사를 시작했다.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전통을 유지하며 과감한 컬러와 혁신적인 조합, 오리엔탈풍의 프린트가 브랜드를 상징한다. 핸드백과 슈트 케이스, 여행 가방을 중심으로 액세서리, 레디투웨어 라인까지 페이즐리 무늬를 입혔고, 이후 인테리어 소품과 침구류 등 홈 컬렉션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에트로의 고급스러운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유아하고 세련된 셀렉션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라이프스타일 전환을 이루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홈 컬렉션 이후 에트로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는 향수. 향수를 제조한다는 것은 자적인 예술이자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믿는 에트로는 1989년, 밀라노 부티크에서 최초의 향수를 선보였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것만 보아도 에트로가 독자적인 향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트로의 향수 컬렉션은 25가지에 이를 만큼 다채롭다. 저마다 다른 스토리와 성분, 보틀 디자인으로 개성 있게 선보여 자신만의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향을 선택할 수 있다.

## 에트로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향의 판타지

그동안 해외에서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했던 에트로의 향수를 이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지난 3월 공식적인 론칭을 기념하는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접한 에트로의 향수는 패션 브랜드다운 감각적인 패턴의 보틀과 다채로운 향기,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가 신비롭게 조화를 이룬다. 향은 총 25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해 국내에서는 10가지 제품을 먼저 출시한다. 개성 강한 패턴으로 표현하는 자카드와 라자스탄, 페이즐리부터 만나 보자. 올해 새롭게 완성한 자카드 오데 퍼퓸은 핸드 패턴으로 그린 꽃을 담은 보틀로 볼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향수. 재스민과 일랑일랑이 피어난 정원의 따스한 향기를 표현했다. 보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묻어 있는 라자스탄 오데 퍼퓸은 미려한 자하의 열정을 담았다. 로즈, 아카시아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향이 특징이며, 페이즐리 오데 퍼퓸은 블랙 커런트 잎과 인도네시아 파출리로 완성한 매혹적인 향수다. 더불어 투명한 보틀로 이루어진 7개의 향수도 이어진다. 푸릇한 새싹의 싱그러움 향을 담은 비아 베리 오데 토일렛, 신부의 부케를 연상시키는 워터 릴리의 청초한 향이 느껴지는 비올라 피오리 오데 토일렛, 관능적인 향의 대표 격인 마스크를 활용한 '마스크 오데 토일렛'도 주목할 만하다. 중성적인 향을 선호한다면 '에트리 오데 토일렛'을, 남자를 위한 향으로는 파출리와 재리눔이 어우러진 '산달로 오데 토일렛'을 추천한다. 특히 레몬 껍질에서 상큼하게 피어오는 풋풋한 시트러스 향의 레몬 소르베 오데 토일렛, 이탈리아 허브를 생생하게 해석한 '페가스 오데 토일렛'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라줄 이 계절을 위한 향수니 놓치지 말 것. 다양한 감정과 취향의 순수한 결정체로 완성한 에트로의 향수 컬렉션은 광활한 일상에 아름다운 울림을 안겨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43-5050 에트리 베이비진, 이예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초한 워터 릴리의 사랑스러운 향을 담은 비올라 피오리 오데 토일렛(50ml, 10만원), 블랙 커런트 잎과 인도네시아 파출리로 완성한 '페이즐리 오데 퍼퓸'(50ml 13만5천원), 상쾌한 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비아 베리 오데 토일렛'(50ml 10만5천원), 로즈와 아카시아를 기쁨 있게 표현한 라자스탄 오데 퍼퓸(100ml 16만5천원), 재스민과 일랑일랑을 담은 이국적인 플로럴 향취의 자카드 오데 퍼퓸(100ml 16만5천원).

인물 사진: 김현준, 제품 사진: 박건주, 에트리: 이예진



## Simple & Elegant

"엄마와 전 많이 꾸미는 것보다 우아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를 즐겨 찾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진주 목걸이와 크리스탈 시계를 좋아하시고, 전 펜던트와 팔찌를 늘 하고 다녀요. 엄마와 함께 주얼리를 골라주며 공유하는 시간은 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_ 발리리나 김주원



(오른쪽 윗부터 차례로) 골드 레어 링 각 8만9천원, 웨딩 링을 연상시키는 에트레트 링 라운드형과 스퀘어형 각 18만5천원, 16만5천원, 배젤 워터 스톤이 움직이는 라벨리 크리스탈 워치 8만원, 플라워 모티브의 아셋 네크리스 로즈 골드와 실버 각 13만원, 진주 모티브 네크리스 33만원, 나뭇잎 모티브 엔젤 아이링 16만5천원.

# Brilliant memory

때론 친구처럼, 때론 자매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는 엄마와 딸. 모델 아이린과 발리리나 김주원 모녀가 스와로브스키와 만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었다.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트라 크로노 워치 72만원, 스톤을 다양한 각도로 카팅한 아담선 네크리스 63만원, 골드 & 블랙 매치 비디오 링 33만원, 볼드한 체인 모티브 아모르 네크리스 33만원, 실버와 골드 레어 링 각 8만9천원, 컬러풀한 스톤을 장식한 볼드한 이트 밴글 46만원, 아모르 브레이슬릿 21만4천원, 문의 1661-9080

## Ageless Jewel Style

"엄마는 저의 스타일 뮤즈예요.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와 옷장이 저의 놀이터였어요. 엄마가 즐겨 하던 스와로브스키 주얼리는 이제 제가 하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 새롭게 나온 디자인을 사놓으면 엄마가 더 좋아해서 즐겨하고 다니세요. 덕분에 전 리스러해지고 엄마는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의 패션스타가 되었죠!" 모델 아이린



한결 진화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프로그램, 클럽메드

# All-inclusive resort

휴가에 관한 모든 걸 아우른다고 당당히 외치는 세계적인 리조트 그룹 클럽메드. 세계 36개국의 아름다운 지역 80여 곳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클럽메드가 내세우는 서비스 상품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는 여행을 결정짓는 순간부터 추가 비용이나 일정에 대한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그야말로 상품명처럼 '모든 걸' 포함시킨 편리한 패키지다. 항공편, 객실, 1일 세 개의 식사와 간식거리, 스포츠 강습, 키즈 클럽, 댄스파티까지, 각각각색의 요소를 갖춘 이 프로그램이 휴가객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2014년은 휴일들이 합심한 듯 모여 있는 기간이 꽤 된다는 이점으로 다들 휴가에 대한 열망이 무척이나 강한 해다.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풍성한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올해, 그냥 떠나면 될 듯하지만 사실 준비가 만만찮은 게 바로 '휴가'라는 이름의 또 다른 노동이다. 클럽메드(Club Med)는 항공편,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교통편, 인력한 객실은 물론이고 먹을거리, 각종 스포츠와 오락 활동까지 하나의 패키지 요금에 포함되는 편리한 서비스 상품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예약 시 한 번의 결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바로 클럽메드가 내세우는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Premium All-Inclusive)'라는 알찬 프로그램인데,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져보기 귀찮은 여행객이라면 주목해볼 만하다.

## 모든 교통편이 한 번에 해결되는 편리함

일단 출발에서부터 최상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클럽메드 각 리조트의 에어 패키지 상품에는 왕복 항공편과 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물론 공항 픽업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클럽메드 직원의 안내로 리조트까지 전용 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리조트에 도착한 뒤에는 클럽메드 경험의 핵심적인 존재인 리조트 전문가 G.O(Gentle Organizer)를 만나게 된다. G.O는 클럽메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주 직원으로, 다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계의 팡팡미인'이다. G.O의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웰빙 드링크를 마시고 나면 온갖 간식과 시름을 떨쳐버리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조트 생활의 출발선을 끊은 셈이다.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공항과 리조트 간 프라이빗 교통편이 따로 제공된다.

## 취향대로 택할 수 있는 다채롭고 인력한 객실

스위트룸이 아니라도 클럽메드에는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있다. 인력함은 객실의 '기본'이다. 게다가 클럽메드의 객실 대부분에는 리조트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객실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정취를 나름 음미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객실 타입은 정갈한 분위기의 슈퍼리어 룸이다. 추가 요금을 부담한다면 보다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달렉스 룸, 조식 무료 룸서비스와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스위트룸, 이 밖에도 가족 단위로 찾아온 고객들의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컵벙 룸도 이용할 수 있다. 컵벙 룸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함을 선사한다.

## 세계 각국의 미식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맛있는 여행

클럽메드에서는 휴가 내내 고객들의 입맛을 북돋워주고 망설임 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미식'의 향연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무제한 음료, 주류가 제공되는 오픈 바(bar)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현지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매일 다른 종류로 제공하는 뷔페식 메인 레스토랑부터, 코스 형태로 한결 조용하고 여유롭게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스페셜티 레스토랑(리조트에서 예약제로 운영)까지 그 종류도 다채롭다.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시간의 틀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레스토랑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갖가지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늦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스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클럽메드의 자랑인 오픈 바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음료와 맥주, 와인, 칵테일 등 1백20여 가지의 음료와 주류가 무제한 제공된다. 클럽메드 관계자는 "해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비치 바 칵테일은 언제나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 밤을 잊게 만드는 환상적인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클럽메드에서는 '볼타는 금요일'과 같은 경험을 리조트 내에서 누릴 수 있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더라도 리조트 내에서 심심하게 지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매일 밤 클럽메드의 전천후 도우미 역할을 하는 G.O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칵테일파티로 버무려진 흥겨운 나이트 엔터테인먼트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 아찔한 스텐을 선사하는 수준 높은 서커스 쇼부터 화려한 노래와 댄스 공연,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 코믹 쇼 등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돼 있다. 또 오픈 바에서는 모두가 같은 드레스 코드로 맞춰 입고 즐길 수 있는 댄스파티가 여행객들을 기다린다. 이곳에는 무제한 음료와 주류를 접하면서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예컨대 서로 다른 국적의 여행객들이 한 데 어울려 각국의 음악을 신나게 즐기는 가라오케, 같은 동작을 따라 배우며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그너처 댄스파티 '크레이지 사인' 등은 클럽메드를 찾는 고객들이 '밤을 잊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펼쳐지는 역동적인 스포츠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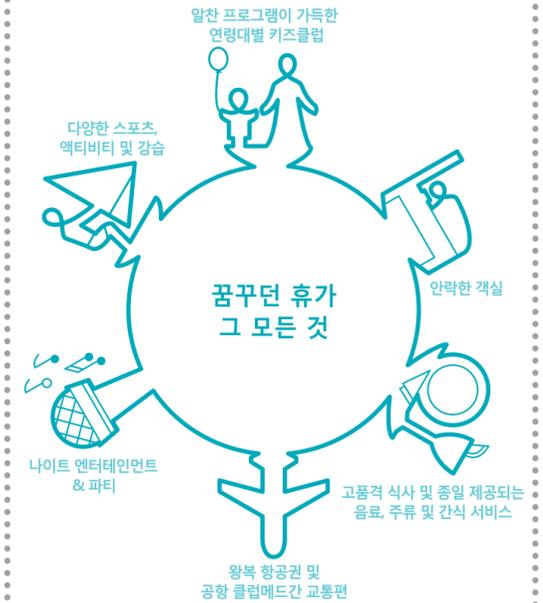
혹시 관심은 늘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제쳐두었던 스포츠가 있는가? 그렇다면 클럽메드에서의 시간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클럽메드는 리조트 내에서 60여 가지의 다양한 액티비티(리조트에 따라 일부는 추가 요금 발생)와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랜드(육지) 스포츠로는 클럽메드만의 시그너처 액티비티인 공중그네(서커스)와 양궁을 비롯해 테니스, 골프, 탁구, 요가 등을 들 수 있다. 또 수상스키, 스노클링, 윈드서핑, 세일링, 카약 등 에메랄드빛의 깨끗한 바다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특히 전문 G.O가 초보자를 포함해 고객 개인의 수준에 맞는 스포츠 강습을 진행한다. 물론 대부분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클럽메드를 선택한다면 자연과 함께 하는 진정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 아이와 부모 할 것 없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키즈 클럽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여행이 오히려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지만 여행 내내 일일이 챙기려면 부모는 행복과 고단함을 동시에 맛보기도 하니까. 클럽메드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4개월부터 만 17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 연령대별로 짜인 키즈 클럽의 프로그램은 역시 G.O의 숙련된 손길로 빛을 발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제공하는 베이비 웰빙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니 클럽(만 4~10세), 주니어 클럽과 패스워드(만 11~17세) 등이 리조트마다 기본으로 구비돼 있다. 베이비 클럽(만 4~23개월)과 프리 클럽(만 2~3세)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그 사이 부모들은 자녀 걱정 없이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원만한 수 있다. **에디터 고정민**

## All About Club Med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여섯 가지 강점 항공편,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교통편, 인력한 객실은 물론이고 풍성한 먹을거리, 각종 스포츠와 오락 활동, 아이와 부모의 '원'을 위한 키즈 클럽, 그리고 흥겨운 밤을 만들어주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하나의 패키지요금에 포함되는 편리한 서비스 상품이다.



**꼭 알아둘 용어** 클럽메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주 직원으로 다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리조트 전문가는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고객은 G.M(Gentle Member)으로 통한다.

**클럽메드 여름휴가 굿 보너스(Good Bonus) 프로모션, 최대 40% 할인 판매** 현재 클럽메드에서는 4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 숙박과 항공이 모두 포함된 에어 패키지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따라서 성인 기준으로 1박17일 원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클럽메드 중국 개원, 일본 카비라 비치, 인도네시아 빌리와 빈탄 아일랜드,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체리펀 비치, 몰디브 카니 등 총 7개 리조트에 한해 진행된다. 예약 기간은 5월 31일까지.

**예약 문의**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www.clubmed.c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 Base mate

내게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 구매에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면 주목할 것. 베이스 명가 메이크업 포에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베스트셀러 베이스 5종을 뷰티 전문가들에게 추천받아 직업별, 원하는 피부 표현별로 제안한다. 내게 맞는, 그리고 나만의 베이스 비결을 공유하고 싶은 지인에게 선물할 베이스 제품은 무엇?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벨벳 플러스 30ml  
5만2천원, 메이크업 포에버 페이스 앤  
바디 50ml 5만2천원,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30ml 5만5천원,  
메이크업 포에버 리퀴드 리프트  
파운데이션 30ml 5만2천원,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 피니쉬 10g 5만6천원.



## 완벽한 피부를 위한 맞춤 베이스 컬렉션

특히 나게 이목구비가 크고 또렷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으면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가꾼 매끄러운 피부는 여자의 재산이나 다름없다.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색조보다 베이스 메이크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마치 타고난 피부가 어리고 좋은 듯 연출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피부 타입, 직업, 원하는 피부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듯 베이스 제품 역시 이에 맞게 골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메이크업 포에버의 베이스 제품은 수려한 꾸준한 인기를 얻고 두꺼운 마니아층을 형성한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베이스 명가인 메이크업 포에버의 제품답게 다양한 타입과 포물리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타입의 제품이건 완벽하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주어 한번 사용하면 사람은 이 제품만 고집할 만큼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다. 또 메이크업 포에버 전국 매장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MBM(My Base Mate)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베이스를 찾을 수 있어 더욱 믿을 수 있다. 변함없이 사랑받는 메이크업 포에버 베스트셀러 베이스 5종을 뷰티 전문가가 추천한다.

**퍼펙트 올스킨 핏, 고화질 카메라도 두렵지 않은 포토샵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은 제품명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HD 고화질 화면에서도 완벽한 무결점 피부를 연출해 아티스트와 셀러브리티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 파운데이션이다. '포토샵 파운데이션'이라는 애칭만큼이나 뛰어난 밀착력과 함께 포토샵으로 보정할 듯 균일한 피부 표현을 선사한다. '별도로 프라이머나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 추천하기도 전에 고객들이 먼저 찾는 제품이예요.' *\_by 롯데백화점 본점 메이크업 포에버 매니저 이마나*

**올데이 벨벳, 보습한 피부를 유지하는 벨벳 효과** 초강력 커버력을 자랑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벨벳 플러스는 번들거림 없이 보습보습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이에게 제격이다. 이런 장점으로 장시간 동안 번짐 없이 깔끔한 메이크업을 유지해야 하는 승무원이나 모델 사이에서 일

스몬 난 파운데이션이기도 하다. 보습하고 매트한 마무리감을 선사하지만 건조하지 않고 피부 속이 촉촉한 것이 최대 장점. 무엇보다 뛰어난 롱 래스팅 효과로 메이크업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매트 벨벳 플러스를 사용하면 완벽한 커버력과 함께 벨벳처럼 보습한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돼니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 *\_by 모델 장한솔*

**윤기 촉촉, 보습 그 이상의 효과** 메마른 피부의 소유자로, 일반 파운데이션이 뜨겁고 뽕뽕하면 바르던 바를수록 촉촉함이 배가되는 메이크업 포에버 리퀴드 리프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봐. 약간성 피부도 잠재워줄 만큼 풍부한 보습력과 높은 커버력을 겸비해 실패 없이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크림처럼 쫄쫄한 텍스처가 피부를 탄력 있게 잡아주고, 이온트에서 추출한 폴리리프트 성분이 피링 필름막을 형성, 즉각적인 안티 링크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전혀 걸리지 않고 피부에 착감겨요. 남들은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 *\_by 메이크업 포에버 교육부 부장 고재희*

**물광 촉촉, 물과 땀에도 자유자재 지는 지속력** 메이크업 포에버 페이스 앤 바디는 80% 이상이 수분 젤로 이루어진 물광 베이스 종결자다. 피부에 발랐을 때 물방울이 눈에 보일 정도로 미스트를 뿌린 듯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줌과 동시에 물이나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땀에도 묻어지지 않아 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자외선에 닿아오는 피부에 바르면 쿨링 효과와 함께 고온 피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처음 피부에 닿을 때의 상쾌한 쿨링감이 피부를 진정시켜요. 약간성 피부인에도 풍부한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어 7년 동안 애용하고 있어요.' *\_by 뷰티 셀렉트숍 대표 황보님*

**절대 팩트, 간편하고 편리한 수정 메이크업** 여자들에겐 수정 메이크업은 아침에 하는 메이크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절대 팩트'라는 애칭을 가진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 피니쉬는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한 파운데이션 팩트다. Wet & Dry'라는 획기적인 포물러로, 때에 따라 촉촉한 피부 표현과 보습한 피부 표현을 모두 연출할 수 있다. 수정 메이크업 시 건조함이나 뭉침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한 지속력으로 메이크업이 처음 그대로 신뜻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이 출시되었을 당시는 물광 피부가 유행해서 팩트는 사실상 허황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프로 피니쉬가 나오면서 다시 팩트 제품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팩트 하나로 다양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_by 뷰티 에디터 박나영 문의 080-514-8942 에디터 권유진*

**자연광 아래에서 건강함과 윤기를 발하는 피부**

"자연스러움이 곧 스타일이다"라고 말한 마드무아젤 샤넬은 그 당시 여자를 억누르던 관습에서 벗어나 여태껏 시도하지 못한 패션, 뷰티 스타일을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 선구자다. 골프, 테니스, 승마 등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며 햇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연의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간직했던 마드무아젤 샤넬의 사진 속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 작년, 샤넬 메이크업 하우스는 이런 마드무아젤 샤넬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복잡한 메이크업 단계로부터 여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치 자연광 아래에서 본연의 건강함과 윤기를 발하는 듯한 피부 표현을 완성하는 레 베쥬 컬렉션을 선보였다.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맞아 트렌드로 부상한 아웃도어 뷰티의 새 장을 연 샤넬의 레 베쥬 컬렉션. 아름다운 자연을 테마로, 모든 피부 톤에 어울리는 헬시 글로우 쉬어 파우더와 BB와 CC크림보다 한 단계 진화한 '올인원 헬시 글로우 크림', 그리고 올해 한정 제품으로 출시되는 멀티 페이스 파우더 헬시 글로우 멀티-컬러 등 세 가지 제품이 그 주인공이다.

**가볍고, 쉽고, 건강하게, '레 베쥬 컬렉션'**

레 베쥬 컬렉션은 땀과 피지, 습기에 번들거리지 않는 롱 래스팅 효과를 발휘하고, 메이크업 단계를 최소화해 피부를 더욱 가볍고 산뜻하게 연출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는 기존 샤넬의 블랙 패키지를 과감히 버리고 피부를 연상케 하는 컬러이자 샤넬을 상징하는 컬러인 베이지를 선택해 건강하고 럭셔리한 아웃도어의 느낌을 강조했다. BB와 CC크림

을 뛰어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레 베쥬 올인원 헬시 글로우 크림은 피부 표면의 결점을 보정하고 즉각적으로 건강한 피부 본연의 윤기를 선사하는 올인원 기능의 메이크업 베이스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항오염, 항산화와 피부 진정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절대적인 심플함을 강조한 레 베쥬 헬시 글로우 쉬어 파우더는 기존 파우더의 단점으로 꼽히던 건조함을 해결한 페이스 파우더다. 올인원 헬시 글로우 크림을 바른 뒤 닦아낸 피부에 최상의 은은한 반짝임을 더하고, 마치 산책 후 자연스럽게 그을린 듯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한다. 특히 내장된 반달 형태의 브러시는 눈을 감고 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품 개발자의 말처럼 메이크업을 매우 쉽고 빠르게 완성하도록 돕는다. 5월 한정 판으로 선보이는 레 베쥬 헬시 글로우 멀티-컬러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라데이션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 페이스 파우더로는 물론 하이라이터, 블러셔, 브론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멀티 아이템이다. 보습력이 탁월한 시아버터, 피부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비타민 E, 천연 코튼 등을 함유해 미세 먼지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피부를 안전하고 촉촉하게 보호한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제품은 레 베쥬 가부키 브러쉬다. 레 베쥬 컬렉션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브러시가 필수. 미세한 파우더 입자를 피부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드러운 화이트 인조모로 제작했다. 운동을 막 마친 후처럼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와 건강한 윤기를 연출하는 레 베쥬 컬렉션. 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선호하는 여자를 위한 최적의 아이템이다. 레 베쥬 올인원 헬시 글로우 크림 30ml 7만원. 레 베쥬 헬시 글로우 쉬어 파우더 12g 7만2천원. 레 베쥬 헬시 글로우 멀티-컬러(한정 제품) 12g 7만2천원. 레 베쥬 가부키 브러쉬 7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healthy Glow*

무조건 하얗고 잡티 없는 피부가 각광받던 시절은 지났다. 피부 본연의 건강함과 윤기가 감도는 내추럴한 피부는 굳이 잡티를 숨기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니까. 마드무아젤 샤넬이 과거에 그랬듯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당차고 활기 넘치는 여자를 위한 샤넬 레 베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editor's Pick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일이 많은 5월. 화장품으로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검증된 제품을 참고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맥 스트로브 크림 메이크업은 생략하지만 맨 얼굴에 광을 내고 싶을 때 주저 없이 선택한다. 얇게 펴 바르면 미세한 필이 '착' 하고 달라붙어 은은한 빛이 돌면서 윤기가 흐른다. 비비는 순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어서는 안 되는 베이스 제품으로 손꼽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듯. 50ml 4만6천원. 문의 02-3440-2645 *\_by 에디터 이예진*

아더마 밤 레브르 레파리시옹 앙팅스 색과 향이 모두 없어 자극적인 제품을 꺼리는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립 케어 밤. 튜브 타입이라 사용감이 부드럽고 식물성 활성 성분을 사용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 입술이 심하게 텅들 때 소량만 발라도 바로 회복된다. 15ml 1만2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배미진*

시세이도 UV 프로텍티브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35 PA+++ 요즘 같은 날씨엔 땀과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으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오래 유지되는 메이크업 제품이 절실하다. 파란 팩트리는 애칭을 가진 이 제품은 수분을 많이 내는 특수 코팅 파우더가 배합되어 시간이 지나도 보습한 피부를 유지한다. 피부 결점을 완벽히 커버하고 미세한 굴곡까지 자외선을 빈틈없이 차단하니 율어름 필수 아이템으로 등록할 듯. 12g 5만6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권유진*

룩사담 홀 퍼플 로즈, 오렌지, 그린 티 등 다양한 향기로 선보이는 룩사담의 리빙 퍼플. 향기가 강하지 않으면서 지속력은 뛰어난 욱실이나 침실 등 어느 공간에 두어도 편안하다.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리필과 펌프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홀 퍼플 100ml 2만7천원, 펌프 펌프 1만3천원. 문의 02-3014-2965 *\_by 에디터 배미진*

리안케이 셀 투 셀 에센스 마백과 주름 개선 기능을 모두 인증받은 식물 세포 추출 물을 담은 에센스. 1백만 개 셀이 에센스 1병에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다. 70ml 15만원. 문의 080-200-5100 *\_by 에디터 배미진*

베네프트 더 포어페셔널 파운데이션이나 하이라이터 등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밀착되도록 도와주는 모공 프라이머. 여러 단계의 메이크업을 가져도 밀라거나 두꺼워지지 않는다. 22ml 4만4천원. 문의 080-001-2363 *\_by 에디터 이예진*

나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몽블랑 SPF 12 PA++ 민감성 피부 여성들에게 극찬받은 가벼운 입자의 프레스 파우더. 지성 피부의 번들거림을 한 번에 잡아줄 만큼 피지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번 덧발라도 두꺼워지지 않는 두 가지 장점을 갖췄다. 12g 6만8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린스 엑스트라-피임 나이트 크림 피부 재생 작용이 가장 활발한 새벽 황금 시간대에 집중 작용하는 밤 전용 탄력 크림으로,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듯 보일고 매끄러운 피부로 깨어난다. 쫀쫀하고 촉촉한 텍스처는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베갯잇에 묻어지지 않아 들뜬 바르고 자도 무방하다. 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권유진*

프로스틴 비타민 B 컨센트레이트 피로 해소를 위한 영양제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 B는 피부에도 보약과 같은 존재. 프로스틴의 비타민 에센스는 잠재하지 않은 순수 비타민 B를 고농축해 손상된 피부를 빠른 시간에 제지리로 되돌린다. 리필 리브 소스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25ml 4만8천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이예진*

랑콤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리바이버-플라즈마 에센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농축된 질감이라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표면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다. 무경을 돌려서 어느 펄핑 형태라 먼저 걱정이 없고 양 조절이 쉽다. 50ml 19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예진*

크리닉 디퍼먼트 네일 에나멜 포 센서티브 스킨 피부가 극도로 민감한 사람은 네일 에나멜도 미울것 바르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순한 네일 에나멜이 나왔다. 피부의 민감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성분은 모두 배제했다. 피부와 테스트는 물론 안과 테스트까지 완료해 네일 에나멜을 바를 때 눈이 따갑지 않다. 9ml 1만9천원. 문의 02-3440-2773 *\_by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슈프림 리바이빙 크림 수분과 오일을 융합한 탄탄하고 럭셔리한 텍스처의 매력이 극대화된 크림. 처음에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피부를 감싼다. 텍스처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는 제품. 50ml 36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배미진*

다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고르고 화사하게 정돈하는 핑크빛 세럼. 로션과 에센스를 결합한 듯 부드러운 텍스처가 독특하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피니셔로 사용하면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듯 매끈하게 마무리된다. 30ml 14만원. 문의 02-3438-9631 *\_by 에디터 이예진*

프레쉬 마스크 트리오 마스크 팩의 전설로 자리 잡은 프레쉬의 베스트셀링 마스크 팩을 모두 사용해볼 수 있는 특별한 팩키트. 슈가 페이스 폴리셔, 로즈 페이스 마스크, 블랙 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크 팩을 처음 접해보거나, 간편하면서도 특별한 피부 관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30mlx3개 1세트 11만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배미진*





2

따스하고 쾌청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의 제주. 온화한 햇살과 싱그러움, 노란 유채꽃까지, 제주도는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맞이한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고귀한 원료가 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핵심 성분인 첫물 녹차다. 만물이 소생하는 제주의 봄기운을 가득 담은 첫물 녹차는 녹차의 정수이자 건강한 피부를 위해 자연이 준 선물이다. 고귀한 첫물 녹차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온 1박 2일간의 여정 속으로.



### 그린 티 헤리티지를 담은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인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다. <스타일 조선일보> 애독자라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를 소개한 기사는 수십 개에 이른다. 실제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했고, 이에 대해 많은 글을 써왔지만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원료인 녹차 성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녹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분이다. '특별한 녹차가 있을까,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녹차를 바르다고 피부가 좋아질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경험한 첫물 녹차 채엽과 아모레퍼시픽 타임리스 리추얼 행사를 통해 이 모든 오해는 해소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녹차의 특별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중국 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 산지로 꼽힌다. 일조량이 많을 뿐 아니라 제주도 섬 지형의 특성상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연중 고온 다습해 차밭이 1년 내내 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에서 자란 녹차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봄에 새로 피어나는 새순에서 얻은 첫물 녹차의 풍부한 유효 성분은 다른 녹차 생엽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1년에 단 한 번, 청명과 곡우 사이(4월 5~20일), 단 15일 동안만 채엽할 수 있는데, 이 15일간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강하게 담긴 기간이다. 제주의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새순을 골라 정성으로 거둔 첫물 녹차는 겨울 동안 응집되어 있던 모든 영양분을 응축해 녹차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여겨지는 귀한 원료다. 아모레퍼시픽은 유일하게 이 첫물 녹차를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주성분으로 사용한다. 특히 첫물 녹차를 농축한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링 아이템. 이는 첫물 녹차와 아미노산 보테니컬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다양한 피부 노화의 징후를 빠르게 케어한다. 또 녹차에 내재된 성분을 찾아내 이를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하는 기술인 '피토 플루이딕스'를 적용한 아모레퍼시픽만의 '타임 코딩 시크릿' 안티에이징 노허우가 돋보인다. 녹차 생엽을 바탕으로 한 타임 코딩 시크릿 기술은 유효 성분을 피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 탄력과 피부 톤 개선, 보습 등의 토털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4

### 오감으로 녹차를 느끼다

제주에서 진행한 아모레퍼시픽 타임 리추얼 행사는 귀한 원료인 첫물 녹차의 고귀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오감으로 체험하며 녹차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특히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음식과 차, 향, 음악, 스파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정수-타임리스 뷰티'를 실현하는 값진 경험이다. 비빔과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세 가지 행(녹차 꽃, 녹차 잎, 녹차 잎과 꽃) 테스트와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의 문진을 통해 릴랙스, 에너지이징, 디톡스 파밍 등 세 가지 타입에 따른 개개인의 성향을 처방받았다. 자가 문진표를 통해 현재 자신의 마음과 몸에 필요한 향을 찾아 부족한 휴식과 여유를 채우고, 향기를 통해 치유하는 경험을 제공한 것. 이는 곧 풍요로운 제주의 자연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과 몸의 정화를 시작하는 단계이자, 시간과 나이를 잊고 자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처방받은 나만을 위한 스페셜 음악을 들으며 발걸음을 옮긴 곳은 섭지코지. 섭지코지는 노랗게 피어오른 유채꽃과 함께 제주의 봄을 먼저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섭지코지의 산책길 사이에 자리 잡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로 들어가 제주의 땅과 물, 바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만든 명상의 공간을 만났다. 이곳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특별한 녹차가 자라나는 제주의 자연을 몸소 체험하며 첫물 녹차를 채엽하기 전 마음을 경건하게 정화할 수 있었다. 이후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특별히 구성한 그린 티 콘셉트 디너와 1:1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리추얼 트리트먼트' 스파 프로그램이 이어졌는데, 심신을 정화하고 진정한 오감 만족을 선사하는 아모레퍼시픽만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 고귀한 첫물 녹차를 만나다

아모레퍼시픽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녹차를 직접 재배하고 차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회사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황무지에 녹차밭을 일궈 이곳을 세계적인 녹차 산지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의 녹차 산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퀄리티 높은 최고의 녹차를 생산한다. 행사 이틀날 아침에 방문한 아모레퍼시픽의 사관다원에서는 청정한 공기와 천연 임반수의 에너지를 한껏 머금은 건강하고 싱그러움 녹차가 새순을 피우며 자라나고 있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모레퍼시픽이 녹차로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밀을 사관다원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조심스레 채엽한 새순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음미하니, 녹차 특유의 씹새름한 탄닌 맛과 함께 첫물 녹차의 풍부하고 은은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이 첫물 녹차는 사람의 몸과 피부에 좋은 여러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윽한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녹차의 향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도록 사관다원 한편에 위치한 티스톤에서 첫날 문진 시 선택한 향으로 디퓨저를 만들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채엽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녹차의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1박 2일간의 여정이 모두 끝났다. 글로만 알고 있던 녹차의 성분과 효능을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다가온 감동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에서 발견한 첫물 녹차의 고귀함과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으로 만난 나만의 특별한 녹차와의 추억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타임리스 뷰티가 실현되는 현장을 확인한 셈이다.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제주도 현지 취재)



6

1 고귀한 첫물 녹차와 아시아 보테니컬 성분을 함유해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자랑하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 2 1년에 단 한 번 청명과 곡우 사이 단 15일간의 채엽이 가능한 제주도 첫물 녹차. 3 끝없이 펼쳐진 아모레퍼시픽 사관다원. 4 녹차의 향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디퓨저를 만드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5 제주의 봄을 먼저 만끽할 수 있는 섭지코지. 6 아모레퍼시픽 리추얼 행사는 음식과 차, 향, 음악, 스파 등 오감으로 체험하며 녹차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1:1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보고, 느끼고, 사랑하라

# 2014 봄, 새로운 미술관들을 품다

미술관만큼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곳이 또 있을까? 3월에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DDP)가 오픈한 것을 필두로 최근 주목할 만한 미술관과 갤러리가 대거 개관했다. 이번 봄, 꼭 가보아야 할 새로운 미술관과 갤러리를 소개한다.

##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DDP

7년 7개월 동안 4천8백40억원을 들인 DDP가 드디어 공개됐다.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부지에 들어선 DDP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은 낮선 디자인의 건축물이라 외관을 구경하는 것부터 흥미롭다. 4만5천1백33개의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져 어느 한 곳도 똑같은 풍경이 없는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 특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금속, 콘크리트, 잔디, 단 세 가지뿐이다. 건축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던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DDP의 개관에 맞춰 서울을 방문했다. “건축과 지형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DDP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지형을 이루었다는 것이 대단히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붕은 잔디로 덮여 있어 멀리서 보면 동대문에 새로운 지형이 창조된 것 같지요. 내부 역시 기존의 네모난 박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 전시장기에 그 자체가 지형과 어우러집니다.” 자하 하디드는 설계할 때부터 지향했던 기묘한 아름다움이 구현된 DDP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DDP의 개관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하 하디드가 최근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설계를 맡으며 입증되었다. DDP 공간은 크게 다섯 곳으로 나뉜다. 신제품 발표와 공연 등이 열리는 알티어, 디자인박물관과 갤러리가 있는 배움터, 디자인 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살림터, 그리고 앞뜰과 뒤뜰이다. 앞뜰에는 울지리와 곧장 연결되어 동대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 있고, 뒤뜰에는 역사문화공원이 있다. 모든 공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흩어 길을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다. 개관 전시로는 간송미술관과 함께하는 <간송문화전>, 자하 하디드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자하 하디드, 360>, 울림조형대학의 디자인 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울림 디자인과 그 후> 등이 열리고 있다. 이는 DDP가 고민하는 ‘디자인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극명하게 표출한 이상적 선택으로 보인다.

<간송문화전>은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도자기 등의 국보를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의 뿌리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자하 하디드, 360>에서는 건축물 뿐 아니라 스포츠, 구두, 목걸이, 의자와 테이블까지 그녀가 그간 디자인한 창조적인 작품을 전시한다. 그녀가 설계한 DDP에서 또 다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현대 디자인의 초석이 된 울림조형대학의 작품을 전시하는 <울림 디자인과 그 후>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많은 디자이너가 존경한다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엔조 마리의 작품을 소개하는 <엔조 마리 디자인>전 역시 놓치면 안 된다. 최초의 재료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의 사랑스러운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패션을 선도하는 동대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알티어에서는 서울패션위크가 개최되었다. 야경 또한 아름다우니 DDP에서만 24시간을 보내도 심심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www.ddp.or.kr)

## 서울 풍경을 다시 그리다

DDP가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안착한 새로운 조형물이라면,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은 역사적 건축물 안에 자리 잡은 숨은 진주 같은 공간이다. 조선시대 왕의 사무를 담당했던 한옥, 일제강점기 수도육군병원으로 지어졌다가 보안사령부로 사용됐던 붉은 벽돌 건물, 그리고 테라코타와 유리로 만든 모던한 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얼핏 보면 미술관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중요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전시장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됐으며, 1층에는 MMCA 뮤지엄 숍이 있다. 현대식 건물의 서울 박스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서도호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이다. 한진해운이 후원하는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인 이 조형물은 작가가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 거주한 로어일랜드 프로비덴스의 3층 건물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바로 그 안에 작가의 서울 한옥을 매단 형

식이다. 옥색 한복 천을 재봉해서 만든 높이 12m, 너비 15m의 거대한 조형물이 자연 채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난다. 이 ‘한옥을 품은 양옥’ 작품은 전통과 근대,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관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제8전시실에서는 서울관의 건립 과정을 담아낸 <미술관의 탄생>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 작가 노승택, 백승우가 미술관 건립이 확정된 2009년부터 2013년 11월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4년의 과정을 작품이자 기록으로 담아냈다. 조선시대 건물과 일제강점기의 기무사 본관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사진작가의 의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살펴보자. 건립 공사 현장의 시끄러운 음향 기록까지 미술가 양아치의 소리 작품으로 구현되었으니 흥미진진할 것이다. 제1, 2전시실에서는 서세우, 윤병호, 장화진, 황인기 등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39명의 작품을 조명한다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전이 열렸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근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갤러리 현대, 국제갤러리, 아트선재센터, 학교재, 갤러리 인 등 많은 갤러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산책 코스로도 제격이다. 서울의 최근 미술 전시 트렌드를 만나볼 만하다(www.mmca.go.kr)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노원구 중계동에 개관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도 매력적이다. ‘노원(蘆原)’이 갈대 언덕이라는 뜻이라는 데서 영감을 얻어 마치 아파트 숲에 가려진 수락산과 불암산의 전경처럼 미술관을 디자인했다. 바로 옆 조각 공원과 연결되어 산책하기에 좋다. 이곳은 회화와 서예, 사진 작품 전시에 집중한다.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라면, 남서울미술관은 리빙 아트 생활 미술관, 새로 생긴 북서울미술관은 공공 미술 콤플렉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인물 사진 1백60점을 소개하는 사진 갤러리의 <콘택트>전과 백남준에서부터 젊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로부터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소개하는 어린이 갤러리의 <굿모닝, Mr. 로봇>전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sema.seoul.go.kr)

## 안도 다다오와 다비드 머클러의 건축물

미술관은 건축가의 이름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지난해 개관한 뮤지엄 산(한솔뮤지엄)과 월종미술관은 각각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다비드 머클러가 설계를 맡아 주목받았다. 뮤지엄 산은 2005년 안도 다다오가 처음 부지를 방문하고 스케치를 시작한 이후 8년째인 2013년에야 드디어 일반인에게 공개된 친환경적인 미술관이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의 산악자연경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선택했다.



노출 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로 알려진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해발 270m 숲 속에 위치한 부지의 특성을 살려 빛과 물, 돌을 이용한 미술관을 완성했다. 뮤지엄은 플라워 가든, 워터 가든, 박물관, 미술관, 스톤 가든, 제임스 터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길이 가 2.1km나 되기 때문에 첫 방문인 웰컴센터에서부터 전체를 둘러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패랭이꽃 80만 주가 피어 있는 플라워 가든과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 가든, 빛의 미술가 제임스 터렐관이 이곳의 하이라이트다. (www.hansolmuseum.org) 월종미술관은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는 미술가 이월종이 만든 미술관이다. 건축가 다비드 머클러와의 교감을 통해 완성되었다. “도자기를 빚어서 내가 살고 싶은 건물 모형을 만들어 보았지요. 건축가 다비드 머클러와 의논하며 도면을 수정하는 데에만 2년이 걸렸고, 드디어 꿈꾸던 미술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예전 뜰에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옮겨 심었으니 다시 새들이 찾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정착한 20년 동안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탐구해온 작가는 미술관 건립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고 있다고 했다. 1층은 교육 공간과 작품 수장고, 2층은 전시장, 3층은 이월종 작가의 작업실이다. 운이 좋다면 이월종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차지할 수 있을 것. (www.walartmuseum.or.kr)

적산 가옥을 개조한 건축가 조병수의 온그라운드 스튜디오도 빼놓을 수 없다. 1백 년 된 서촌의 가옥을 개조해 서점 기가린과 연결한 이 공간은 서울의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다. 원래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낡은 벽면을 허물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을 담은 건축 전문 갤러리이기도 하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2길 10-14 외 2필지)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도 일제강점기에 건축가 박길영이 지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주로 한식으로 지었는데, 1층은 온돌과 마루가 있고 2층은 마루방 구조이다. 지붕은 서까래를 노출한 박공지붕이며, 3개의 벽난로가 있어 포근함을 선사한다. 박노수 화백은 1973년부터 2011년까지 이곳에 거주했으며, 1991년에 서울신문회재 자로1호로 지정되었다. 작년에 작고한 박해백이 기증한 작품 5백 점과 고가구, 수석 등의 컬렉션 5백 점을 소장한 의미 깊은 곳이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1길 34)

##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가장 늦게 탄생했지만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진 장르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문 미술 공간의 오픈도 눈에 띈다. 지난 2013년 12월, 강남역에 위치한 22층 빌딩의



1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만든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 DDP. 우주선 같은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간송문화전>, <엔조 마리 디자인> 등 다채로운 디자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 꼭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서울 박스에서 전시 중인 미술가 서도호의 대형 설치 작품 ‘집 속의 집 속의 집’. 3 중계동에 새롭게 개관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은 미술가 백남준에서부터 이월종까지, 로부터서 영감을 작품을 소개하는 <굿모닝, Mr. 로봇> 전을 개최하고 있다. 4 강남역의 전방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고층 건물 22층에 위치한 갤러리 스페이스22는 사진 작품 위주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5 건축가 조병수가 적산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서촌의 온그라운드 스튜디오. 기가린 서점과 연결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다. 6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 개관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뮤지엄 산. 수려한 자연 경관과 아우라적인 미술관에게 강원도 여행의 새로운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전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전에 전시되었던 장화진 작가의 설치 작품 ‘1996.8.15 이후’. 8 건축가 배대용이 설계한 강화도의 헤든뮤지엄은 강화도의 사계절이 투영되는 열린 건축 디자인을 자랑한다.



펜트하우스에 개관한 대안 공간 스페이스22는 사진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영리 공간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강남대로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2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부터 매력적이다.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여성 사진작가 여지와 안준의 2인 전시 <Pause & Pose>전을 개최했다. 특히 본인이 작품 사진에 직접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준 작가는 스페이스22 건물 옥상에서 직접 자신을 촬영한 아찔한 작품을 전시에 출품했다. 여지 작가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의 포트레이트를 보여주었다. (www.space22.co.kr) 경기도 성남의 사진 전문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J 역시 놓치지 마시라. 얼마 전에는 폴란드의 가브리엘라 후크와 카야 도브로블스카, 덴마크의 로테 플뢰 크리스텐센, 우리나라 한정은 작가의 각기 다른 몸매에 대한 생각을 담은 <Body & Nature>전이 열렸다. (www.artspacej.com)

## 헤든뮤지엄과 BSSM 백순실미술관

서울을 벗어나 인근의 강화도와 경기도 파주로 미술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강화도의 헤든뮤지엄은 개관하자마자 2013년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선정될 정도로 수려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건축가 배대용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의 사계절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이어오는 역사를 담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건축물을 만들었다. 백남준,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인디애나 등 미술가 29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전이 열렸다. 현재는 국내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대와 감성전>이 열리고 있다. (www.haedenmuseum.com)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에 개관한 BSSM 백순실미술관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판화 작가 백순실이 직접 건립한 미술관으로 <판화가 대화하는 법> 전시를 열었다. 그렇지만 이곳은 판화에서만 영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채로운 미술 장르를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www.baiksoonshil.com) 이외에 근대 새로 생긴 미술 공간으로는 진도의 옥산 김옥진미술관, 대학로의 이화동마을박물관, 강원도 정선의 패망을 개조한 삼탄아트마인 등이 있다. 첨단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는 더 큰 감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예술의 힘을 빌려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은 어떻게? 날씨가 좋은 날, 미술관 산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NY**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출판) 저자

# SHOWROOM



그라프



스와로브스키



불가리



오메가



본진

**그라프 할루시네이션**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는 올해 바젤월드에서 최초로 1백10캐럿, 미화 5천 5백만달러에 이르는 여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을 선보였다. 색색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낸 만화경을 연상케 하는 워치로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리는 장엄주 로렌스 그라프가 직접 고안한 컬렉션이다. 문의 02-2256-6810

**불가리 2014 바젤 페어** 불가리가 2014년 바젤 페어에서 새로운 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탄생 1백30주년을 기념하는 '불가리 로마' 워치를 비롯해 처음 출시하는 여성 워치 '쿠체아', 한층 넓은 스키텐과 최고의 기술력을 담은 아이코닉한 남성 워치 '옥토 컬렉션, 최상의 하이엔드 워치 라미리리오 벨 템포와 정교한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여성 하이엔드 워치 '일 자이르디노 마리오 디 불가리'까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컬렉션을 펼쳤다. 문의 02-2056-0172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블랙 세라믹** 오메가가 '블랙 세라믹-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을 선보인다. 세라믹 케이스와 아우라진 18K 화이트 골드 인덱스에는 코팅한 나일론 스트랩을 더해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했

다. 최고의 기술력을 적용한 코-액시얼 칼리버 무브먼트를 담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문의 02-511-5797

**스와로브스키 시터스 스피어 크로노** 스와로브스키가 2014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컬렉션 중 하나인 '시터스 스피어 크로노' 워치를 소개했다. 여성 워치 중 크로노그라프를 장착한 두 번째 제품으로, 크리스탈을 파베 세팅한 베젤과 로즈 골드 케이스가 조화를 이룬다. 블랙 또는 화이트 송아지가죽 스트랩과 스틸 소재로 선보인다. 문의 1661-9060

**판도라 가정의 달 기프트**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에서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선물을 제안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하트 모티브 참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레터링 청을 직접 골라 취향에 맞게 완성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주얼이다. 문의 02-3438-6096

**엠펙오 아르마니 스위스 메이드 컬렉션** 엠펙오 아르마니가 스위스의 정인 정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스위스 메이드 컬렉션을 제안한다. 1930~40년대에서 영감을 얻은 이 컬렉션은 천연 가죽과 스틸 스트랩, 커보송 컷 크라운, 기조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컬러의



엠펙오 아르마니

소재와 섬세한 공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골드 다이얼과 독특한 크라운으로 선보이는 '멜팅 골드', 이즈트릭 가죽 스트랩으로 품격을 높인 '로잉 로즈', 메탈 브레이슬릿의 '브라이트 메쉬'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40-6500

**론진 마스터 컬렉션** 론진에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마스터 컬렉션 레드그레이드를 제안한다. 브랜드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ETA 론진 칼리버 무브먼트를 담았으며, 12시 방향에서는 오일, 다이얼 우측에서는 캘린더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인천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9-9532

**에르메스 아썬 뽀띠룬** 에르메스에서 아썬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페셜 기능을 추가한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출시한다. 38mm의 자름으로 좀더 여성적으로 재해석한 '뽀띠룬'은 등차 모양을 떠올리는 비대칭 형태의 스틸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셀프와징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3448-0728



에르메스

## LIFESTYLE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발렌타인이 골프 시즌을 맞아 '2014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기존 발렌타인 17년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인벡한 발렌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린 컬러의 보틀에 골퍼 이미지와 발렌타인 B 로고를 더해 오리 지날 17년과 차별화된 패키지를 선보였다. 6월부터 전국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66-5700



**골드문트 2014 스페셜 프로모션** 골드문트에서 스페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창립 클래식 스토어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골드문트 제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골드문트 제품을 구입하면 사용하던 오디오를 최저 30만원부터 70%까지 보상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창창장을 가지고 골드문트 매장에 방문하면 전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16-9081



**클림에트 여름휴가 굿 보너스 프로모션** 클림에트가 리조트 패키지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여름휴가 굿 보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숙박과 항공이 포함된 에어 패키지를 성인 1백17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다. 클림에트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차타랑 비치, 인도네시아 비탄 이일랜드, 중국 개펄, 일본 카바리 비치, 몰디브 카니 총 7개 리조트에 한해 진행된다. 예약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문의 02-3452-0123



**타이리스트 프리미엄 컬렉션** 타이리스트가 프리미엄 컬렉션을 론칭한다. 레드 컬렉션, 자카드 컬렉션 등 2가지 라인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엄선한 최고급 소재에 80여 년간 이어온 전통과 전문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카드 백, 하프 백, 보스턴 백, 토트백, 피우치, 클러치, 미니 클립 등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이며, 블랙과 레드 컬러, 메탈과 태슬 장식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다. 문의 02-3014-3800



다리 F&S

트롬비즈



발리



발질레리

에르메네집도 제너



잭 니클라우스



골로에



자방시



골롬비아 델라스피가

**발질레리 리넨 셔츠** 발질레리에서 리넨 셔츠를 제안한다. 기공을 통해 리넨 특유의 가진 느낌을 부드럽게 완화했으며, 통기성이 좋아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스트라이프, 체크, 솔리드 등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매를 걸어 올려 롤업 스타일로 입어도 멋있다. 문의 02-3479-1956

**발리 바르다 슈즈** 스위스 브랜드 발리에서 2014 S/S 시즌을 맞아 '바르다(Bardak)' 슈즈를 출시한다. 신명난 블루,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완성한 스타레토 힐 펌프스도, 뾰족한 앞코와 매끈한 라인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부산점, 대구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7-8935

**르베이지 그라데이션 프린트 블라우스** 르베이지에서 '그라데이션 프린트 블라우스'를 제안한다. 한 국적인 모티브를 르베이지만의 모던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프린트 시리즈 중 하나인 셔츠 형태의 블라우스다. 화이트 바탕에 오묘한 감정의 프린트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다. 셔츠 형태의 블라우스뿐 아니라 리운드 네크라인의 블라우스, 네오스핀 소재의 톱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38-6212

**에르메네집도 제너 쿨 이펙트 패브릭** 제너에서 여름을 앞두고 쿨 이펙트 패브릭을 소개한다. 쿨 이펙트 패브릭은 손수 호주산 울 섬유를 혁신적으로 가공해 뜨거운 태양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체감을 도를 10°C 이상 낮춘다. 시원하고 구김이 잘 가지 않아 미팅이나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 제격이다. 문의 02-511-0285

**자방시 창립 클래식 스토어 오프닝 파티** 자방시가 창립 클래식 스토어 오픈을 축하하는 파티를 개최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파사드는 생 투노레 자방시 매장의 블랙 박스에서 영감을 얻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스토어에서는 세계 최초로 남성복과 여성복, 액세서리 등 자방시의 전체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오프닝 파티에는 공연, 유예, 고준희 등 수많은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3440-1195

**토즈 2014 밀라노 국제가구 박람회** 토즈가 2014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IFA)에서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IFA)에서 일 본 디자인 스튜디오 네노(Nendo)와 함께 작업한 '안벨로 보트 슈즈'를 공개했다. 토즈의 아이코닉한 남성용 보트 슈즈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스웨이드와 가죽을 색다르게 조합했으며 블루, 그레이, 브라운, 블랙 등 세련된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48-8198

**다리 F&S 자방시 아이웨어** 다리 F&S에서 전가하는 자방시 아이웨어에서 새로운 컬렉션 'SGV895G'를 선보인다. 웨이퍼러 형태의 오버사이즈로 선보이며, 메탈 스트랩으로 트랜디한 스타일을 강조했다. 블랙, 브라운, 다크 베이지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513-2345

**골롬비아 델라스피가 네노 컬래보레이션** 골롬비아 델라스피가가 글로벌 디자인 그룹 네노(Nendo)와 컬래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네노의 디자이너 오키 사토(Oki Saito)가 디자인한 '포켓 컬렉션'은 악자족 포켓과 스트랩을 더해 커다란 포켓 안에 또 하나의 가방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솔더백과 클러치백, 카드 케이스 등 총 10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문의 070-7130-9200

**트롬비즈 2014 마더스 데이 컬렉션** 트롬비즈에서 아이들을 맞아 2014 마더스 데이(Mother's Day) 컬렉션을 출시한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하트 모티브의 실크 잠, 생명의 희

토즈



르베이지



## JEWEL

**다음 2014 S/S 트랜젯** 다음에서 크루즈 룩에서 영감을 얻은 '트랜젯' 컬렉션을 선보인다. 미세한 필라 피그먼트가 어우러진 다음스킨 누드 슈머와 네일 폴리시, 큐티르 스티커, 네일 파일로 구성된 매니큐어 트랜젯 등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8-9631

**랑세 조세핀 & 르 방케 향수** 랑세에서 남자와 여자를 위한 향수, '르 방케와 조세핀'을 선보인다. '르 방케'는 프랑수아 랑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나폴레옹에게 헌정한 향수로,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시원한 향이 특징이다. 조세핀은 황제의 아내인 조세핀에게 헌정한 여성 향수로 장미와 재스민, 히아신스, 아이리스의 매혹적인 향을 담았다. 문의 02-3443-1805

**샤넬 레 베쥬 헬시 글로우 멀티-컬러 SPF 15/PA+++** 샤넬이 새롭게 선보이는 '레 베쥬 헬시 글로우 멀티-컬러 SPF 15/PA+++'



랑세



샤넬

는 페이스 파우더, 하이라이터, 블러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트트한 제품이다. 고급스러운 37가지 톤의 베이지 컬러를 섬세한 입자로 담아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하고 양 볼을 이뉠답게 물들인다. 보습력이 풍부한 비티민 E와 사이타버, 화이트 로즈 플로라 추출물을 담았다. 문의 080-332-2700

**몽블랑 남성 향수 엠블럼** 몽블랑에서 새로운 남성 향수 '엠블럼'을 출시한다. 그레이 프루츠와 로즈메리의 활기찬 향으로 시원해 카르다움, 클라리 세이자가 조화를 이루는 미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파츨라와 암브룩산의

유욕적인 향으로 마무리된다. 욕구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보틀은 몽블랑의 민네펠과 시계처럼 자상한 남성은 남성성을 상징한다. 문의 080-800-8809

**메이크업 포에버 루즈 아티스트**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루즈 아티스트의 기존 컬렉션에 오가드 핑크, 오렌지 레드, 누드, 코랄 등 올해 트렌드 컬러 4가지를 추가했다. 브랜드 창립 30주년을 맞아 실크 컬러의 입술 모티브를 두경 우쪽에 각인하고 모 든 라인에 브랜드명을 담아 패키지를 모던하게 리뉴얼했다. 문의 080-514-8942



메이크업 포에버

몽블랑

## BEAUTY